

# 재편되는 세계경제, 한국의 생존전략은

The Era of Great Transition: A New Roadmap for Economic Cooperation

---



## FORUM BOOK

---

**KORASIA**  
FORUM 2023

## 세계경제, 판이 바뀐다

<b>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1. 미국의 시각</b>	<b>3</b>
브라이언 디스 前 미 국가경제위원장 김종훈 前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	
<b>특별대담: 미·중 경제 패권전쟁 속 한미동맹</b>	<b>8</b>
위성락 前 주 러시아 대사 강선주 국립외교원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교수	
<b>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2. 중국의 시각</b>	<b>13</b>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b>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3. 한국의 시각</b>	<b>17</b>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b>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4. 한일 경제협력 방안</b>	<b>20</b>
마에카와 나오유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장 정외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혁신성장본부장	

## 한국 주력산업의 생존전략

<b>2차전지, 제2의 반도체 될 수 있나</b>	<b>24</b>
선양국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석학교수	
<b>한국의 경제협력 전략: 시장을 넓혀라</b>	<b>28</b>
김수완 한국외대 중동이슬람전략 교수 김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남아시아팀장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허 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사회)	
<b>세계가 주목하는 K-방산</b>	<b>36</b>
강은호 前 방위사업청장	
<b>반도체 전쟁과 한국의 선택</b>	<b>40</b>
양향자 한국의희망 당대표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	

# 세계경제, 판이 바뀐다

##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1. 미국의 시각

**김종훈**  
前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



**브라이언 디스**  
前 미 국가경제위원장

### “김종훈

네 안녕하세요, 브라이언 디스 박사님. 말씀 나누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지금 늦은 저녁 시간이지요? 저녁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에서는 이제 막 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국가적인 의제인 기후 변화와 연방 예산과 같은 사안을 다뤄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백악관의 핵심 멤버로서, 오바마 행정부 출범 초기에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기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도 2009년에 자동차, 즉 산업 구제 금융과 관련해서 브라이언 디스 박사님께서 기여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도 마이클 프로먼님 그리고 론 커크 대표님과 함께 협력을 하였습니다. 당시 USTR(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미국 무역대표부)이셨는데요. 함께 협상을 진행하였고, 마침내 한미 FTA에 자동차 부문을 재작성 하였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매우 힘든 시기였는데요. 그때는 이미 합의된 문안을 도출했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 시절에 제출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저희가 비록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저희가 공통된 주제에 대해서 종사했다고 생각하고 또 만나 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의 청중께서는 박사님의 통찰과 고견을 듣고자 하는데요. 특히 '변화하는 세계경제의 질서'라는 주제에 대해 고견 나눠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관점이겠지요.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바로 '세계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계화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로서 분야에 관계없이 민간·공공 모든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저도 세계화 시대에 많은 FTA를 많은 교역 국가와 함께 조율하고 협상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분들께서는 지구를 '지구촌'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화라든지 지구촌이라는 단어는 이제 옛날 옛적에나 통용되던 말이 된 듯합니다. 요즘은 더 이상 세계 어떤 지도자도 경쟁적인 자유화라든지 혹은 추가적인 개방을 무역과 투자에 대해서 실행하는 것을 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화는 끝난 것인지" 의견을 여쭙습니다.

### “브라이언 디스

네, 먼저 함께하게 되어 기쁘고 영광입니다. 여기는 저녁이지만 또 아침 인사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저희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공통의 목표를 향해 노력해 왔다는 데에도 공감합니다. 특히 저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뜻깊게 느껴지는데요. 특히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서 양국 간의 상호 방위와 경제협력을 기념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변화가 지난 70년 동안 있었지만, 여러 측면에서 저희 한미동맹도 함께 진화하면서 가장 성공적인 협력 사례로, 양국 간의 협력과 동맹 사례로 인류 역사에 남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대화가 더욱 시의적절하겠습니다.

세계화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는 현재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차원의 체제 변화, 경제 정책과 접근법에 대한 체제적인, 체계적인 변화의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거의 30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직전까지는 저희가 시장 개방과 통합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시대를 벗어나서 파편화와 회복력으로 정의되는 시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수십 년 동안 무역과 투자 자유화가 이루어졌고 또 기술 발전과 민주화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치 경제가 어떤 정책을 능가하는 경제 자연법칙이 있어서 '자유화나 세계화만이 유일한 방향이다'라고 느껴질 법한 시기였죠. 그런데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어서 글로벌 경제 체제가 더욱더 파편화되었고, 새로운 질서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체제 변화의 초기 단계에는 정확하게 앞으로의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몇 가지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로, 지정학적인 고려 사항이 국내의 경제 의제에서 대단한 지배력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로, 더욱더 큰 중요성이 상호 투자와 동맹을 서로 지정학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국가들 간에 이루어지는 동향이 강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이라는 개념, '지정학적인 목표를 공유하는 우방과 동맹국 간의 개방성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개념이 더욱더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세계화가 끝났다고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세계화는 팩트이자 저희가 맞이한 현실입니다. 물론 이런 통합의 속도와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런 세계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이죠. 이 세계화가 '종말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미·중 교역 규모를 보면 작년에 명목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물론 그 구성이 달라지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라고 해서 저희가 '경제적인 협력을 더 이상 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과거와는 다른 목표와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고 양자·다자 간 관계에 새로운 도전과제가 부상할 것입니다.

### “김종훈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보자면 이 경제 성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장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함께 나눠질 수 있는 파이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 성장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IMF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은 아마 10년 내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합니다.

##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1. 미국의 시각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많은 통계 수치에서도, 세계 교역량이나 교역 규모가 많이 둔화되었습니다. 저희가 서서히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절뚝거리면서 여기저기서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마찬가지로 세계화가 끝나서인지, 아니면 저희가 아직까지 인류 전체의 행복과 번영을 추구하는 새로운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궁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가 파편화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께서는 이것을 '이탈', '다이버전스(divergence)'라고 부르고 있기도 하는데요. 이런 예시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선은 미국이 대응을 하기 시작했죠. 중국의 불공정한 관행과 규칙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일종의 맞대응이 이 두 거대 경제국 간에 이어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의 디커플링(decoupling)'이다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탈동조화, 디커플링을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리스크 제거, '디리스크잉(derisking)'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물론 이 두 단어 사이에는 상당한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중, 이 두 거대 경제대국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습니다.

### “브라이언 디스

네,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내용을 짚어보는 맥락으로써, '글로벌 성장'이라는 말씀하신 배경에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성장 환경 자체가 대단히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선은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것이 이 세계 경제가 대규모의 전례 없는 충격을 연이어 겪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여러 차례의 충격 파가 이어졌죠. 이런 것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고, 에너지, 식량 그리고 기타 원자재 공급에 상당한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 충격의 여파가 아직도 세계 경제에 단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올해 가장 중요한 취약점은 말씀하신 질문대로 중국이 중국 내부의 목표 성장률과 저희의 성장 전망치 모두를 하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올해 들어 IMF가 글로벌 성장을 추정치를 소폭 상승 조정했습니다만, 여전히 지난 10년에 비해서는 대단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중국의 성장 둔화와 미국 경제 성장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역학관계를 읽을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한데요. 결국 미·중 관계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디커플링인지, 디리스크잉인지 아니면 아예 다른 것인지 고심을 하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그리고 제가 모셨던 바이든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또 공정하게 경쟁하기를 지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잘 관리되고 규율된 경쟁의 맥락에서 이루어져야겠죠. 중국의 성장을 제약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경쟁을 달성하자'라는 것이 목표이죠. 저는 이러한 기조가 대단히 건전하고 또 기본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디커플링과 디리스크잉 사이에서는 상당한 실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한 단어의 의미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객관적으로 디커플링 자체가, 특히 미국과 중국 경제의 디커플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디커플링은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아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국 간의 상호 교역 규모가 최고치인 것에서부터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이탈'이 반영된 것이죠. 상품 교역이 줄어들고 서비스 교역이 늘어나서, 양국 경제 사이에 역학 관계가 변화하였습니다.

하지만 디커플링과 디리스크잉의 차이는 목표와 목적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디커플링이라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를 떠나서, 디커플링을 하고 서로 벽으로 사이를 가로막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목표이지요. 대신에 불공정한 경쟁이나 불공정 거래 관행들을 잘 식별하여 이것을 직접적이고, 또 강력하게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목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국가 안보와 관련될 우려가 있는 영역을 반드시 식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영역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만, 최대한 신중하게 그 본질을 좁게 정의하고, 이러한 요소에 대단히 정교한 방식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은 작은 마당을 정의를 하고, 그 둘레에 높은 울타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국가 안보 사안이라면 예외적으로 간주를 하여 좁은 마당을 설계하고 높은 울타리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디리스크잉의 구조, 그러니까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지 않으면서도 활발한 경쟁을 추구하는 것에 리스크 자체가 없는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안은 대단히 비현실적으로 또 가차 없이 양국 경제를 디커플링한다거나, 아니면 중국의 관행들을 그대로 용인하면서 불공정하게 규칙을 왜곡하고 미국 내의 노동자와 지역 사회에 피해를 주는 것은 용납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중간의 중도를 모색하려는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습니다.

### “김종훈

네, 맞습니다. 한국도 좋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대중관계에서 그러한데요. 대단히 일방적이고, 또 거친 무역 정책이나 무역 조치를 겪은 바가 있습니다. 한국의 상품과 그리고 한국의 서비스에 대해서 중국 시장 내에서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조금 더 주의 어린, 우려 어린 시각으로 중국과 중국 경제를 접근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중국이 미국의 안보 또는 미국 경제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요소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브라이언 디스

네, 한국의 경험도 있으시기 때문에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관행이 그냥 추상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또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사람들의 생계와 일자리 기회에 타격이 미치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가 이미 느꼈을 법한 심정을 미국에서도 매우 실질적으로 통렬하게 느껴오고 있습니다. 특정 산업의 특정 기술을 꼽을 수 있을 정도인데요.

미국이 정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공적 자금을 투자하여서 핵심 기술을 개발하였는데, 그 이후에는 이 기술이 다른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어떤 경우에는 빼앗겨 버렸습니다. 중국이 해당 부문을 장악하려는 명백한 목표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서 미국은 해당 산업에서 경제가 매우 어려운 입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태양광 그리고 상위 부품으로 태양광 제조에 들어가는 부품 산업들이 그 예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초기에 커크 대표님과 마이클 프로먼과 함께 일하셨던 그 시기인데요. 미국은 납세자 혈세를 대대적으로 투자하여서 태양광 기술과 배터리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수년에 걸쳐서 관련 비용을 끌어내리는 데 기여했죠. 그런데 이 기술은 미국을 떠나 버렸습니다. 해당 산업을 지배하려는 중국의 매우 노골적인 전략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했던 것이죠. 그러한 전략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미국 경제와 회복력을 갖춘 성장에 위협이 됩니다.

국가 안보 측면에 대한 질문도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불공정한 경제 관행이나 경쟁 관행을, 한국이든 미국이든 지역 사회에 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국가 안보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됩니다. 국가 안보 문제라는 것은, 자국민이나 동맹국에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협의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국가 안보 위협도 실제로 존재하지만, 본질적으로 훨씬 더 범주가 좁다는 것이죠. 가장 두드러진 예시는 첨단 마이크로 전자 장비나 아니면 반도체 산업이 될 것입니다. 미국이 몇 안 되는 아주 제한된 영역을 규정해서, 특히 첨단 반도체 칩 등이 군사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기술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에 대응하면서 전략적으로 해당 칩의 제조를 미국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하면서 중국의 접근은 차단하는, 촉진과 차단의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대단히 복잡하고 다자 간의 접근과 파트너가 요구되는 과업입니다. 지속적으로 경계 태세를 갖추고, 이 적용 범위가 흘러넘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마당이 신경 쓰지 않으면 잡초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마당 너머로 자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늘 주의를 기울이면서 작은 마당이 거침없이 커지는 그런 시기에 대응하면서 조심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공정하고 활발한 경쟁을 지향하지만 이 경쟁이 의도치 않게 갈등으로 번지는 것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 “김중훈

네, 감사합니다. 브라이언 박사님, 이제 실물 경제와 관련된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미국의 'IRA(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부터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IRA가 한국 내에서도 특히 재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와 반도체가 한국 산업과 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투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IRA의 핵심적인 콘셉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 투자를 유치하여서 미국 내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법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 IRA가 시행된 지 이제 일 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실질적인 효과로써 이 법이 어떤 효과를 미국 경제에 가져왔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브라이언디스

네, 이 법안이 통과된 지 일 년이 조금 넘은 지금이기 때문에 질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 통계 수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IT에서 최근에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펠로우로 제가 MIT에서 일하고 있기도 한데요. 지난 한 해 동안 미국 경제는 2,130억 달러의 청정 기술 관련 투자가 있었습니다. 이 2,130억 달러라는 것은 일 년 전보다 37% 증가한 수치이고요. 5년 전보다는 165%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압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는 배터리와 배터리 제조업체이고요. 2차전지, 태양광 설비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고속 성장하고는 있으나 소규모라 배수 효과가 있는, 최신 기술인 탄소 포집이나 수소가 그를 잇고 있죠. 따라서 미국 내에서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 붐이 일어나고 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GDP 데이터도 민간, 고정 투자에 대해서 보게 되면 건설과 제조업에서 해당 영역이 거의 두 배로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질 수치여서 인플레이션 조정을 이미 한 것이죠. 그래서 이 현상은 미국 내에서 실제로, 효과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미국이 이런 투자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 이런 효과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미국에서 필요한 규모와 범위에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부지 선정이라든지 프로젝트 완공,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로는 필요한 기술을 갖춘 근로자를 확보하는 것에 대한 과제입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몇 가지 청정에너지 공급망과 관련된 첨단 부품에서도 인력 확보, 인력 교육에 대한 과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외국인 투자를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전 세계 그 어느 곳보다 한국이 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데 최적의 위치에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2,130억 달러 가운데 약 30%가 한국 기업이나 혹은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 간의 조인트 벤처에서 발표한 투자 내용입니다. 잘 알고 계신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죠. SK나 현대, 한화큐셀 등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혁신을 거듭해왔고 이미 이 순간을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해 왔고, 미국 내에서 투자를 통해 대규모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한국의 기업들은 미국 경제에서 선도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현대 자동차는 이미 미국 내에서 2위의 전기차 제조업체이고요. 큐셀은 미국의 가정용과 상업용 배터리 공급업체에서 1위의 위치를 이미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보이고 있는 모습이, 한국의 기업들이 한국 내에서도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만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거대한 기회를 심분 활용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대답을 드리자면, 일 년이 조금 지난 지금, 경제 효과는 저희가 기대했던 가장 낙관적인 수치에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물론, 큰 기회이기는 하지만 꾸준히 추진력을 발휘하여서 이런 투자의 효과가 좀 더 경제적인 생산량이나 청정에너지 측면에서 이어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 “김종훈

네, 참고로 간단하게 한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예전에는 한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었습니다. 25%의 한국 수출이 중국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비율이 계속해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에는 대중 무역이 흑자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역전이 되어서 현재 대중 무역 적자를 보고 있고, 이것은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그 이유를 적어도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중국 산업의 경쟁력 자체가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이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이 중국 시장에 최종 제품을 만들기 위한 중간재를 공급하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중국도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의도적으로 수출 대상국을 다변화하려고 노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가는 수출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국과의 경제 관계 혹은 메커니즘이 모종의 변화를 겪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IRA 법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산업 정책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기에 미국은 언제나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사실 한국은 과거에 대단히 진지한 협상 등을 통해서 보조금이나 특정 산업,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을, 즉 미국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보여왔고 그 당시에 미국이 이런 관행에 대해서 301조 보복 등으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러한 산업 정책이 전 세계 모든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국가가 자체적인 산업 정책이 있고, 보조금을 이런 정책의 대단히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경제 환경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이나 아니면 자국 내에서의 정부 보조금에 대한 의존이 '공정한 경쟁을 전 세계 모든 교역국에게 보장한다'라는 것을 저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브라이언디스

네, 그 위험에 대해서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당히 잠재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도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서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간략하게 미국의 오래전의 과거 역사를 통해서 맥락을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금 더 긴 기간으로 과거의 미국 역사를 보게 되면 미국도 언제나 어떤 형태의 산업 정책이나 산업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국 초기에 알렉산더 해밀턴 재무 장관 시절이나 아니면 남북전쟁 이후 국가 재건기에도 그랬고, 2차대전 발발 후에서부터 냉전으로 치닫는 시기에 더욱더 그 경향이 뚜렷하기도 했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나 고속도로 건설, 달 착륙 프로젝트 등도 마찬가지죠. 결국 집중적인 노력으로 산업의 역량을 키워서 무수한 혜택을 미국 경제와 나아가 세계 경제를 위해서 만들어 내겠다는 방향성은 늘 존재했습니다. 최근에는 이 개념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승자와 패자를 결정할 수 없고, 보조금이 결국은 공정한 경쟁을 왜곡한다는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 역사나 한국이나 다른 국가의 경험을 보았을 때는, 이러한 산업 정책이 효과적이고 신중하게 수행된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잠재적인 문제점들과 허점들은 잘 피해야만 하겠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는, 아주 분명하고 투명하게 주요 무역국과 동맹국에게는 이 보조금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소통해야만 합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뚜렷하게 정의된 체계 없이, 불투명하게 회색 지대로 보조금 제도처럼 운영하는 오류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 등에서 미국이 국내 반도체 제조기업 기반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유럽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해당 분야의 민간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삼성, TSMC, 인텔 정도의 소수 몇몇 기업들뿐입니다. 이럴 때 리스크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여러 국가들을 넘나들면서 국가 보조금에 경쟁을 불리고 악용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미국과 유럽 동맹국 등이 노력을 기울여서 이러한 접근법에서 투명성을 최대한으로 제고하면서 이런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는 데에도 힘써야 합니다.

### “김종훈

네, 작별 인사를 드리기 전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녁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한국 경제가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무역 관계가 중국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대중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작은 개방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은 우리 경제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국이 시장을 글로벌 시장에 개방한 것은 너무나 좋은 기회와 계기를 마련해 주어서, 세계 경제와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고 한국의 경제 성장에 좋은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는 이자율입니다. 전 세계가 미국의 이자율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대단히 긴축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부양이 필요할 때도 손발이 묶여있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를 보면 지금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고용률이 높고, 아주 견조한 소비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고금리를 중단해야 하는 시기다'라고 관측하고 있고, 아니면 '금리 인하를 시작하여서 글로벌 경제를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얼마나 오래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까요? 아니면 멈추거나 바뀔까요.

### “브라이언디스

네, 지적하신 대로 미국 경제가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맞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하나는 미국 소비자들의 회복력이고요, 또 노동 시장의 회복력입니다. 역사상 높은 수준의 일자리 증가율, 그리고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헤드라인 인플레이션과 근원 인플레이션, 식품과 에너지와 같은 변동성이 큰 요소를 제거한 근원 인플레이션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회복력을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큰 이유 중 하나는 지금까지 과거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공급 제약과 관련된 이슈가 서서히 해소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해소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분명히 공급망이라든지 공급 차질 부분에서의 진전이 뚜렷합니다.

두 번째 요인은 노동 공급 측면입니다. 작년 미국에 중요하게 노동 시장의 진입로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노동 시장에 들어와서 구직을 하고 또 성공적으로 채용된 분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여성이라든지 합법 입법자 등의 노동 시장 유입이 크게 늘어났고요. 그래서 과거에 적체 현상이 있었던 노동 시장이 개선되면서 미국 경제의 정상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준(美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금리 인상 캠페인에서 물러나서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제 리스크가 조금 더 양방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준이 이제는 현명하고 신중하게 해야 할 일은 이게 다음의 단계로 넘어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금리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그들이 원하는 영향력을 실물 경제에서 발휘해 보겠다는 접근법을 펼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제 시스템 내에 그 효과가 많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다른 방향으로 변화했는지를 매우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겠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중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연준이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특히 오늘 파울 의장님께서도 조금 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셨는데요. 조금 더 신중한 자세로 전환한다는 징후를 내보내주기도 하셨습니다. 인내심과 같은 단어가 더 자주 언급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방향이 계속 이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여전히 글로벌 경제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 위험이 상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를 잘 조율하기 위해서 연준은 계속해서 경계를 유지할 것이고요. 또 미국의 경제 역학관계를 보았을 때에도 그 어느 때보다도 연착륙이 보다 분명하게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종훈

네, 감사합니다. 많은 한국의 청중들께서 박사님의 여러 주제에 대한 통찰을 듣고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대화를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국 분들이나 청중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 “브라이언디스

네, 몇 가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두 가지 최고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백악관에서 몇 년 동안 일하면서 가장 좋았던 두 가지 기억입니다. 첫 번째는 잠깐 유명세를 탔던 순간인데요. BTS가 백악관 방문을 하여서 같은 날 백악관 브리핑 룸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브리핑 룸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동안이긴 했지만 유명세를 탔고, 제 열 살짜리 딸이 평소보다 저를 더 멋지다고 생각해 준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양국 경제 그리고 양국 국민들 간의 따뜻함과 그 관계의 깊이를 생각할 수 있는 경험도 있었는데요. 예전에 SK그룹의 고위급 대표단이 백악관을 방문하였습니다. SK 회장님도 백악관에 방문하여 저희가 대접하였는데요. 때마침 그날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웨스트윙의 루스벨트 룸에서 회의를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화상으로 건너편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서 참여하였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나서는 백악관의 로즈 가든으로 모시고 나오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갔더니 저쪽 관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2층 발코니에 나오셔서, 물론 거리가 있긴 했지만, 손도 흔들어 주시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만큼이나 바이든 대통령이 저희 양국의 국민 그리고 정부, 경제에 한미 관계가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지난 70년간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이보다 더 성공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는 볼 수 없었던 듯합니다. 안보와 공동의 가치에 핵심 기반을 두고 이제는 경제적 우선순위를 공유하는 관계로 진화하였습니다. 양국의 기업과 혁신가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를 함께 해결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이라든지 청정에너지 보급이나 아니면 큰 기회를 의료나 기술 분야에서도 함께 개척하고 있습니다. 공통의 기조를 기반으로 하여서 협력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세계에 많은 도전과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계화가 이러한 한미 간의 파트너십을 닮은 모습으로 진정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큰 희망을 품게 됩니다. 저는 이런 방향이 향후 70년에 계속 이어지면서 양국이 구축한 동맹을 더욱더 널리 확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김종훈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찰을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세계경제, 판이 바뀐다

## 특별대담: 미·중 경제 패권전쟁 속 한미동맹

**강선주**

국립외교원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교수



**위성락**

前 주 러시아 대사

### “강선주

안녕하십니까, 국립외교원의 강선주 교수입니다. 오늘 코라시아 포럼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욱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올해 주제가 ‘재편되는 세계경제, 한국의 생존전략’인데 그 안에서 안보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셨고, 제가 거기에 전문가 분과 함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재편되는 세계 경제에는 경제적인 요소 말고도 안보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러한 커다란 상황 속에서 한국의 안보와 경제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안보에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한미동맹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자리가 오늘 여기에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 주제에 관해서 가장 잘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현재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위성락 前 러시아 대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성락 대사님께서서는 외교부에 입부하신 후에 북미국장, 그리고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한미동맹에 관해서 그 누구보다도 포괄적인 이해를 갖고 계시다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 위성락 대사님으로부터 세계 경제와 한국의 생존 전략 속에서 한미동맹의 역할을 듣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위성락 대사님의 한미동맹에 관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 “위성락

예, 반갑습니다.

### “강선주

제가 위성락 대사님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한미동맹의 현재 상황입니다. 한미동맹은 1953년에 체결되었는데, 그 당시 체결되었을 때의 목표가 또는 목적이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 방지와 평화 유지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한미동맹이 70주년을 맞이하였는데요. 이렇게 70년 동안 존속해 온 한미동맹이 과거에는 안보동맹이었다가 지금은 가치동맹으로 진화하였습니다. 이러한 한미동맹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위성락

예, 동맹은 한국 전쟁의 산물이죠. 그리고 냉전 시기와 탈냉전 시기를 거치면서 한국의 안보를 지키는 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도 있었던 것이고, 또 거기에 힘입어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역할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미·중 대립 또 미·러 대립으로 인하여 탈냉전의 흐름이 사라지고 냉전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져서 서방과 중·러를 양쪽으로 하는 진영 대립이 심화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진영 대립에 가치문제까지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영이 Democracy(민주주의) 대 Autocracy(전제정치)의 대립으로 규정이 됩니다. 미국은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동맹이자 가치를 함께하는 한국에 더 많은 참여와 역할을 기대합니다. 마침 그 시점에 집권했던 한국의 새 정부가 여기에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게 됩니다. 따지고 보자면 한국이 종래에 좀 모호하던 입장에서부터 미·중 사이에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새로운 상황으로 들어가는 건데, 사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나 심화되는 진영 간의 문제를 감안한다면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정책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까지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들은 필요하지만 불가피하게도 반작용을 초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측에 반작용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동맹이 지역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 있어 극적인 진전을 이루었는데, 거기에는 불가피한 기회비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새 과제는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이 기회비용은 어떻게 하느냐로 모아집니다. 만약에 기회비용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기회비용이 너무 커질 수 있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기회비용 컨트롤을 잘 하지 못해서 대가를 지불한 경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과제는 북·중·러로부터 오는 반작용을 잘 컨트롤하고 관리를 해야지 한국이 가지고 있는 별도의 어젠다, 한반도의 비핵화 또 평화 정착, 통일 추구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한미동맹은 계속 시대에 맞게 진화해왔고 지금 우리가 가는 방향은 적절한 거고 필요한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대처해야 할 새로운 도전이 있다. 그 도전을 잘 대처해서 우리 나름의 외교 어젠다인 비핵화, 평화, 통일의 길도 열어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강선주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 강화가 시기적으로는 적절한 것이지만, 거기에 따른 비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비 또한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오전 세션에서부터 ‘미·중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도 없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 국제 관계는 미·중 패권 경쟁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중 패권 경쟁이 한미동맹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영향을 받은 한미동맹 그리고 한국의 안보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 “위성락

지금은 미·중 대립의 시대죠. 지금 미·중대립은 과거의 미·소대립 때와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미·중 대립이 국제질서를 규율하는 압도적인 구도’라는 점에서는 과거 미·소대립 구도와 유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러한 구도가 우리의 모든 대외관계, 대내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미동맹은 물론이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 남북 관계, 핵문제 또 다 이러한 거대한 압도적인 미·중대립의 구도 속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미국이 미·중 대립을 끌고 가는 방안 중의 하나로 동맹의 결속을 중시합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서 이러한 현상이 현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이 한미동맹과 미·중 대립이 한 묶음으로 고려가 되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중국 또한 한·중관계를 볼 때, 종래에도 그런 점이 없진 않았지만 점점 더 강력하게 미국과의 경쟁과 대립이라는 구도 속에서 한·중관계를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점에서 그 둘이 긴밀하게 묶여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미·중 대립이 심화되고 그것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과거 탈냉전 시기의 우리의 안보에 대해서는 중국, 러시아로부터 오는 리스크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게 탈냉전 시대에 우리가 얻었던 일종의 베네핏인데 신냉전의 흐름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조금씩,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차치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안보적인 리스크도 조금씩이나마 늘어가고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강선주

사실 미·중 패권 경쟁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라는 국가들이 매우 많을 텐데요. 그중에 한국도 하나였었지만, 불행히도 그것을 피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 때문에 대외경제 기조를 ‘자유화’에서 ‘경제 안보’로 바꿨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새로운 대외경제 기조가 한미동맹에는 어떻게 투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지요.

## “위성락

네, 이제 미국은 미·중 경쟁을 대처해가면서 종래와 달리, 종래에는 군사 안보에 방점을 두었다면, 요즘은 ‘첨단 기술이나 특정한 경제 분야에서의 중국의 패권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라고 하는 독특한, ‘경제 안보’라고 하는 개념을 내놓았습니다. 그 배경에는 중국이 미국과 가치를 함께하지 아니하고, 중국이 국제규범을 따르지 아니한다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그러한 중국이 기술 분야에서, 경제 분야에서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미국의 안보에 해당이 된다는 문제죠. 그러니까 미국은 종래의 군사 안보와 비교적 유사하게 경제 안보 이슈를 중시하고 그것을 동맹의 이슈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안보 이슈가 한미동맹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고요.

더더군다나 한국이 이러한 주요한 경제 안보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나 배터리 부분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에게서 특히 동참과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으로써는 자체적인 필요 상으로도 경제 안보 문제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와있고요. 또한 동맹인 미국의 주문을 감안해서도 이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위를 누리고 있는 일부 기술의 원천 기술이 있다고 하면은 미국에 기반하고 있고, 또 한국의 경제 관계가 미국과 서방에 깊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주문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인 측면도 있죠. 그러다 보니 남는 문제는 그러면 미국에 부응해서 경제 안보에 맞추어 동맹 관계를 운영해 나가되, 그 정도는 어디까지냐. 나머지 중국과의 협력할 공간은 어느 만큼이나,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강선주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대외 경제 기조로서 경제 안보는, 사실 중국과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으로써는 동맹 관계 안에서 미국의 그러한 대외 경제 기조와 함께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이것은 매우 현실적이고도 실무, 그러니까 경제계에 계신 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선택을 또는 결단을 내리셔야 하는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정부로서나 경제계로서도 매우 어려운 고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사님의 말씀 가운데서 두드러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직 그 표현까지는 안 쓰셨습니다만, 지난 20년간 한국의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아주 간략하게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안미경중’입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안보적으로는 미국과,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이중적인 관계를 말하는데요. 최근에 한미동맹이 많이 강화가 되었는데 이러한 한미동맹의 강화라고 하는 것이 안미경중의 종언을 의미하는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안미경중과 한미동맹 강화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은 있겠는지요.

## “위성락

네, ‘안미경중’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 중국과 1992년에 수교한 이래에 쭉 꾸려왔던 관계, 특히 경제 분야의 관계를 주목해서 그것과 동맹과의 관계를 결합해서 보이는 현상을 표현하는 용어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미경중이 그 자체로 아이디얼(ideal)한 방향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편이고요, 다만 그러한 현상이 있었다. 그런 현상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안미경중은 애당초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콘셉트는 아니었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미·중 경쟁과 대립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불씨가 있었고, 장기간 세월을 거치면서 점차 점차 심화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함께하는 방식을 오래 끌고 갈 순 없었을 겁니다.

## 특별대담: 미·중 경제 패권전쟁 속 한미동맹

역시 아니나 다를까 미국이 경제 안보 개념을 내놓고, 한국 같은 동맹국에 동참을 요구해서 우리가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우리와 중국과의 경제 관계도 상당히 침체를 겪고 있는 건 사실이죠. 미국의 이러한 접근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부하거나 달리 대처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응하면서 보완하는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는 것인데, 미국은 경제 안보 개념을 내놓으면서 또 그 방법론으로 '스몰 야드, 하이 펜스(small yard, high fence)'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패권을 용인할 수 없는 특정한 영역에 국한해서, 그 영역은 광범위한 영역은 아니고 좀 작은 영역에 국한해서 거기에 높은 차단벽을 친다는 겁니다. 우리로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미국이 얘기하는 스몰 야드가 특정한, 정말 스몰 야드에 국한하도록 미국과 협의해 가고, 그 이외의 영역에서는 한-중간의 협력을 경제 분야, 여타 기술 분야에서 할 수 있도록 미·중과 협의해 가는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칫 지금의 스몰 야드가 더 확장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앉아서 전 세션 얘기를 잠깐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전 세션에서도 보면 미 측 인사가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말씀한 기억이 납니다. 특히 이다음에 미국의 행정부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복귀한다면 과연 그게 스몰 야드에 머무를지 의문이 가는 점도 있기 때문에 제반 상황을 잘 보아가면서, 우리로서는 미국의 접근에 일단 적응하면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중국하고 더 은밀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강선주

네, 제이크 셸리번 미국 국가안보의장이라고 해야 하나, 그분이 사용한 'small yard, high fence' 그 표현은 정말로 현재 미국의 경제 안보 기초를 네 단어로 너무나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단어 속에 그 주변 국가들은 너무나 많은 과제를 안게 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위 대사님께서서는 미국과 한국이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도 또 거기에 따른 보안책은 충분히 마련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또 다른 질문 중에 하나는 한국의 상황이라든가 전반적인 국제 상태로 보았을 때, 한미동맹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필요에 의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중국에는 어떻게 보일까'라는 점입니다. 중국은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보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앞으로 한-중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고 가면 좋을 것인지 그 점에 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 “위성락

지금 제기하신 문제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외교 이슈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되고, 한국 외교 안보의 앞날이 여기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의 함의를 가진 일입니다. 사실 미·중이 대립을 하고 경쟁을 하게 된다는 것은 최근에 갑자기 일어난 현상은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예견되고 우려되었던 바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 내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 논의도 많지 않았고, 사실 수교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수교 이래에 한-중 관계를 꾸려갈 때도 이러한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를 어떻게 조화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았다고 저는 반성합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운신해야 되느냐 하는 어떤 전략적인 검토보다는, 약간의 모호성을 내세우면서 주요한 결정은 피하거나 미루거나. 그러다가 꼭 정해야 하면 사안 별로 어떤 때는 미국 편을, 어떤 때는 중국 편을 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점차로 미·중대립이 첨예화하고 또 미국의 주문이 높아지고 중국의 주문이 높아지고 하니, 한국의 그러한 모호한 행보가 좀 어렵게 된 게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 현상은 이미 10여 년 전에 현저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역대 정부 보수-진보할 것 없이 모호한 입장에 안주해온 게 사실입니다. 바람직하기로 말하면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처신해야 할 일정한 좌표를 정하는 게 좋은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없다가 현 정부가 들어왔습니다.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이 점에서는 좀 더 명료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동맹 강화,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당연히 중국 으로서는 놀라게 되고 또 반감을 갖게 되겠지요. 중국이 지난 일 년 반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것을 고심하고 있을 것입니다. 역시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니까 불가피하게 거기에 따른 북한, 중국, 러시아로부터의 반작용이 있는 것이고, 약간의 북-중-러, 한·미·일 간의 대립선도 종래보다 심화된 게 사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한국의 최대 과제인데 아직도 우리가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한다는 방향은 잘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이것을 잘 관리해야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이 가지고 있는 한국 나름의 외교 어젠다,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 정착, 한반도의 통일 추구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맹만 가지고는 그 부분은 해결되진 않습니다. 그건 억제력을 강화하는 점에서는 강점이지만, 억제력은 또 불가피하게 상대의 반응을 가져오니까 약간 전형적인 안보 딜레마 상황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중국과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첫째로는 평이한 얘기이고 상식적인 얘기지만 우선 지금의 국면에서 우리와 중국이 대중적으로, 사안 별로 'tit for tat(tit for tat)'하는 치고받기 식의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뻔한 얘기를 왜 하느냐면, 지금 국내에는 혐중 여론이 아주 높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한국이 수위에 혐중 여론 국가일 정도로 높는데, 그러한 현상이 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중국과 대립 각을 세우는 것이 약간 유혹적인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그러한 포퓰리즘 때문에 대중적인 대응을 하는 쪽으로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많은 소통을 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가 한-중·일 정상회담도 추진하려고 하고 많은 소통을 하려는 것은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인데, 더 많은 소통을 해야 하고 또 지금 외교 안보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실이 소통에 나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특별대담: 미·중 경제 패권전쟁 속 한미동맹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소통을 그냥 많이 하면 되느냐. 많은 소통, 높은 수위의 소통이면 해결되느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통을 하려면 그 소통에서 서로 나눌 정책적인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정책적인 방향, 이른바 '소프트웨어인데 소프트웨어 없이 하드웨어만 가동한다고 해서 생산적인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정책 방향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대중관계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이냐 하는 정책이 있어야 하고. 그 정책은 대미관계, 동맹관계를 어떻게 꾸려야 하느냐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국면에서는 대미정책의 이면이 대중정책이고, 둘은 분리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미·대중정책이 통합되고 조율된 형태에서 나와야 하고, 그 정책의 안에는 한국이 미국과의 공조 수위는 어느 선까지, 중국과의 외교 공간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한국형 좌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좌표가 있어야만 중국과 유의미한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러한 좌표를 가지고 대중 외교공간을 열고 미국과의 공조를 조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좌표와 대화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별도의 어젠다를 가지고 있는 한반도의 비핵·평화 등에 대하여 중국과 협력할 공간을 찾아야 하고 그 부분은 중국 또한 국제적인 비핵화 명분에 공감하는 바이고, 그 또한 중국의 국익에 해당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안정 또한 중국의 국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이 전반적인 경쟁 구도 속에서도 특정한 영역에서는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안을 분리해 내는 외교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분리해 내는 영역 중에 한반도의 비핵화·평화가 있다면 더 좋을 것이고, 한국이 그 문제에 있어서 미·중 간의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조력자/촉진자)' 역할을 한다면 한국 외교에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미·중 대립 구도에서 그게 가능하겠느냐, 전반적으로 나쁜 분위기가 압도하는데 그렇게 특정 영역에서 협력이 가능하냐'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과거 미·소 냉전 때를 돌이켜 보면 미·소가 전반적인 영역에서 경쟁하고 대립했지만 특정 영역, 핵군축이나 핵비확산 등등에서는 협력한 사례들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하기에 따라서는 공통의 이해가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생겨날 수 있는 불가피한 연루의 리스크입니다. 일종의 인탱글먼트(entanglement, 얽힘) 리스크인데, 캠프 데이비드 공약에 따라서 한국은 주변 지역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 미·일과 협의해서 대처를 조율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 중에는 중국 관련 사항이 가장 민감한 것이고, 그중에는 대만 문제, 동진화·남진화 외 여러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안들은 우리가 조율해서 대응하고 공동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루의 리스크를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로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있는데 별도의 지역 주요 안보 이슈에 연루가 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지금의 국면에서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를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 선택입니다. 그러나 일종의 필요조건이지 그것이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별도의 외교 어젠다를 밀고 가는 일은 우리의 몫이고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챙겨야 하고, 그것을 위한 중국을 비롯한 여타 플레이어들과의 외교 공간이 필요합니다.

한국으로써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글로벌한 정세 변화에 따라서 동맹의 역할을 강화하는 보편적인 접근을 하면서도, 한반도의 지정학에 따른 특수한 영역의 보완·보정 조치를 함께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큰 기회비용을 치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요, 탈냉전 시기 초기에 우리가 그 기회를 포착해서 북방 외교를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소련과 수교를 했습니다. 글로벌한 탈냉전의 분위기를 활용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글로벌한 탈냉전 분위기를 한반도로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북방 정책의 일정한 한계인데, 우리가 중국, 소련과 수교를 했지만 북한은 미국, 일본과 관계 개선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나름의 상실감, 패배감, 배신감 속에서 위기를 느끼다가 그 위기를 타개한다는 생각 하에 핵 카드를 집어 들게 됩니다. 북핵 문제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글로벌한 탈냉전 흐름을 한반도에도 가져올 수 있었는데, 가져오지는 못하고 '북한의 핵문제'라고 하는 새로운 난제를 안게 된 것이 있습니다. 기회비용 치고는 꽤 큰 기회비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국면을 어떻게 전개해나가느냐,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기회비용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저희가 지금의 국면에 잘 대처하지 못하면 어떤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느냐면, 냉전 시대에서 한국이 과거의 냉전 시대처럼 진영 대립의 최전선 국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냉전 시기에는 우리와 같은 진영에 있었던 미국과 일본은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우리는 장기간 동안 중국, 러시아와 단절된 속에서 최전선 국가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코스트는 엄청났습니다. 다시 그러한 상황으로 가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일본과 공조 관계를 탄탄히 하면서도 우리가 중국, 러시아, 북한과 관계를 잘 관리해서 한반도 나름의 길을 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21세기, G7의 반열에 들어간 한국 외교가 갈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강선주

네, 이번이 제가 대사님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대담자로서 시간 관리를 위해서 시계를 보고 있었는데, 이 질문에서 대사님께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보면 지금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강화된 한미동맹의 어떤 동전의 다른 면으로써, 한·중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가를 너무나 잘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 강화, 필요하고 적절한 것이지만 거기에 따른 기회비용이 많아서, 21세기 새로운 냉전 상태에 한국이 그러한 냉전의 최전선에 위치하는 그런 불행은 겪지 않도록 한국이 외교 전략을 잘 수립해서 끌고 가야 한다는 그 부분에 관해서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 같이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특별대담: 미·중 경제 패권전쟁 속 한미동맹

사실 이 한미동맹의 문제, 그리고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의 한국 안보의 문제 이런 것들을 30분간 논의한다는 것은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재편되는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의 생존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다루어야 할 사항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 한미동맹에 관한 특별대담은 이것으로써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중한 말씀, 도움이 되는 말씀을 주신 위성락 대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께서도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 가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성락**

네, 감사합니다.

# 세계경제, 판이 바뀐다

##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2. 중국의 시각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예, 안녕하세요.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 소장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얘기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편되는 세계경제, 중국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전략은. 저는 첫 번째는요. '중국은 이제 중동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지금 최종병기 활은 반도체와 배터리입니다. 그러나 반도체와 배터리의 원자재는 40에서 9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석유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 하듯이, 우리 최대의 수출품목이자 흑자품목인 'N' 자로 시작되는 두 가지 품목의 관건은 이제 서플라이 체인에서 원자재가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중국에서 40에서 80%를 갖는 이 산업들을 제대로 지키려면, 대중국 우리 외교 전략은 이제는 자원외교로 바뀌어야 됩니다. 중국은 사우디와 같은 중동으로 봐야 된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무역수지에 목숨 걸지 말고 이제는 경상수지에 목숨 걸어야 된다. 미·중 전쟁의 3차 전쟁은, 내년에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 못 하시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에 당선된다면, 아마 3차 전쟁은 금융전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중국이 코로나 3년, 이 기간 중에 반도체 빼고는 우리보다 못하는 게 단 하나도 없는 무서운 나라로 변신했습니다. 이제는 돈이 일하게 해서 돈을 버는 구조로 바뀌어야 됩니다. 중국의 코로나 3년 동안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해외를 전혀 못 나갔지만, 요우커(遊客,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코로나 전에 1억 6천만 명이 해외로 갔습니다. 이제는 중국의 아웃바운드 중에서 관광 수요를 우리가 어떻게 잡나 하는 것이, 여행수지에서 우리가 흑자를 내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현대차가 한 650만 대의 차를 팔았는데 그중에서 350만 대 정도를 해외에서 팔지만, 중국 의료관광객 350만을 확보를 하게 되면 그 부가가치는 현대차 10배가 넘을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안미경중, 탈중국 이 얘기에서 제발 이제는 벗어나자. 대중국 전략은 탈중국이 아니라 세분해서 인당 소득 13,000달러 때 우리가 했던 입고 먹고 마시고 만들었던 제품, 빨리 중국에서 빼지 않으면 망한다.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로 가는 것이 맞고, 대신 탈중국이 아니라 진중국해야 되고 감중국하는 전략을 같이 써야 된다. 아직도 철강·화학·조선·기계·전자부품 중국에서 여전히 장사 잘 되는데 왜 탈중국을 하나. 서서히 공장을 빼야 되는데 이것을 정치적인 어젠다에 휩쓸려서 같이 가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벤츠 S클래스를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 같습니까? 미국이 13%, 중국이 36%, 벤츠의 고향 독일이 10%입니다. 에루샤(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전 세계 럭셔리 35%를 사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망했다, 중국이 위기이다, 중국은 끝났다' 그 얘기들이 최근 두 달 반, 한국의 모든 언론에서 넘쳐났지만 정말 탈중국 해야 된다고 한 테슬라는 왜 중국에서 공장을 빼지 않을까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중국 가서 더 증설을 한다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애플은 왜 'I'자 들어가는 제품의 80%를 중국에서 만들면서 공장을 닫지 않을까요. 소비재의 어떻게 보면 상징인 코카콜라, 스타벅스, 맥도날드는 왜 중국에서 문 닫고 나오지 않을까요. 자동차의 원조 포드 자동차하고 GM은 왜 중국에서 공장을 빼지 않을까요. 한국의 스마트폰 회사하고 자동차 회사가 중국에서 점유율 0%, 1% 말하는 것을 보고 중국 시장 끝났다고 하는 것은 난센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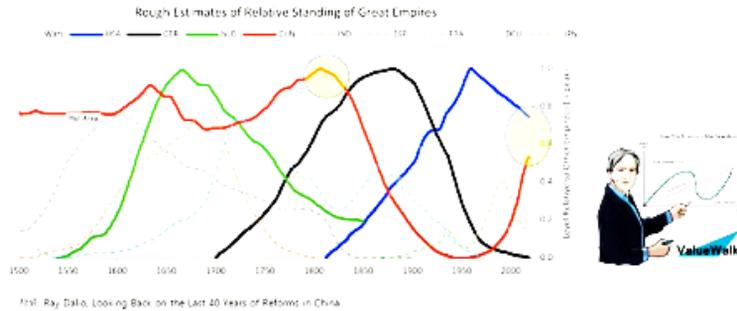
이제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소비 시장이고, 이 소비시장에서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치적 레토릭(rhetoric)에 의한 탈중국이 있으면 빨리 버리고, 미국이 '프레너미(frenemy)'에서 '에너미(enemy)'로 중국을 재정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커플링(decoupling)'이라고 얘기를 하다가 7월부터 '디리스팅(derisking)'으로 바꿨습니다. 한국 당황스럽죠. 그러나 한미동맹 대단히 중요하고 엄청난 업적을 이룬 것이지만, 한미동맹은 한국 경제의 든든한 병풍입니다. 그러나 병풍은 쳐줬지만, 병풍 앞에서 어떻게 놀고 어떻게 신뢰를 챙기느냐는 그것은 미국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선택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미·중 관계에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에서 벗어나면 어떡하냐'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고, '중국이 한국을 보복하면 어떡할까'하는 공포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다 놀라고 있는 Chat GPT를 만들게 하고 가능하게 한 엔비디아가 최고의 기업처럼 보이지만, 엔비디아 그까짓 거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나라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CPU든 GPU든 간에 거기에 반드시 메모리는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엔비디아의 칩셋에 반드시, 머스트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하이닉스의 '하이 밴드 메모리(High Bandwidth Memory, HBM)'입니다. 이거 없으면 엔비디아 소용이 없는 거죠. 중국은 공장은 있는데 기술이 없고, 미국은 기술은 있는데 공장이 없습니다. 바로 반도체죠. 중국은 배터리에서 세계 1등이지만 미국은 배터리를 못 만듭니다. 여러분 핸드폰에서 반도체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거기다 배터리까지 없으면 아무것도 없지만, 반도체도 있고 배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것이 하나 있죠. 5G 통신망입니다. 미국은 5G 통신망이 없습니다. 만들어 낼 수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한국, 반도체·배터리·5G 통신망에서 미국과 중국이 절절히 원하는 것을 다 제공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2. 중국의 시각

그래서 중국과 관련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첫 번째, 중국은 중등으로 보자. 두 번째, 이제는 무역수지에 목숨 걸지 말자. 일본과 최근 30년 동안 우리는 단 한 번도 흑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무역 적자 났다고 우리가 무슨 난리 났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무역 적자가 아니라 경상수지 흑자 쪽에서 답을 찾는 방법이 중요하고, 한국의 대중국 전략은 탈중국이 아니라 전략을 세분해서 탈중국·감중국·진중국으로 가자.

잠깐 몇 개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이 생각하는 미·중 관계는요. 이 서방 언론의 많은 이제 보도들은 '라이징 차이나(Rising China)'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은 그게 아니라, 30년을 보면 라이징 차이나지만 300년을 보면 '리라이징 차이나(Re-Rising China)'입니다. 1840년 아편전쟁 이전의 중국은 지금의 미국보다도 더 큰, 전 세계 GDP의 33%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국가였다가 이게 지금 1900년대에 들어와서 5%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레이 달리오가 그린 그림으로 놓고 보면, 파란 색깔이 미국이고 빨간 색깔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700년마다 이제 굴기를 한다는 '700년 주기설'로 보면, 지금이 바로 중국은 2000년 역사라고 얘기하지만 조사를 해보면요, 55%는 한족이 아니라 이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이민족, 후반기는 한족이 집권하면서 700년 사이클을 갖고 왔는데 '청나라 다음번에 중국은 한족이 집권했기 때문에 새로운 융성기를 맞았다' 이렇게 중국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중 관계는 이 단어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최근 100년간의 미국과 경제 전쟁 또는 외교 전쟁을 했던 No.2 나라의 GDP입니다. 미국은, 미국 GDP의 40%를 넘어가면 No.2를 반드시 죽여 없었습니다. 70년대에 소련이 바로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 소련의 개혁 정책)'로 갈기갈기 찢어서 없어진 것이 바로 89년이구요. 일본이 1985년에 미국 GDP의 40%를 넘어가자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 '엔 다카(円高, 엔고)'를 이제 미국이 요구를 해서 10년 만에 일본을 좌초시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1995년 일본의 최전성기 수준의 이 경제규모를 이미 가졌고, 그래서 앞으로 이 추세로 그다음가면 미국 추월의 길로 가는 것이고요. 그러나 미국 추월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미국은 도저히 좌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좌초시켜야 됩니다. 소련과 일본을 좌초시킨 미국이 그 걸린 시간이 10년에서 18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상식선에서 놓고 보더라도, 적어도 2030년에서 2038년 정도 가야 중국의 좌초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1985년 일본에 비해서 지금 현재 중국은 당시 일본의 12배나 사이즈가 큼니다. 그러면 적어도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나 중국이 GDP에서 미국을 추월했다고 그래서 세계 1등이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유는 국력, 국부라고 하는 것은 누적의 개념이지 한 해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누적을 해보면, 적어도 2050년은 가야 된다. 그러나 중국은 2035년, 2050년에 야망을 갖고 있는데요. 2020년 GDP가 2035년에 두 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연평균 4.8%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논자들이 중국은 시진핑 3기 정도로 해서 '공동부유론', 부자 돈 다 뺏아서 1/N로 나누자는 것으로 간다, 그래서 모택동 시대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지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중국의 공동부유를 잘못 이해하는 것인데, 중국은 2035년까지 경제규모를 두 배로 늘리고 그때 나누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국의 10대 부자들의 재산을 다 나눠가지고 14억으로 나눠봤더니, 1인당 28만 9000원씩 돌아갑니다. 그걸로 어떻게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중국은 공동부유라는 것이 파이 키우고 나서 나누자는 것이지, 지금부터 나누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2035년까지는 적어도 4 내지 5%의, 미국이나 세계 평균의 두 배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 중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적 대국을 보면요. 최근 500년간 제조대국·무역대국·군사대국·금융대국으로 갔는데, 지금 전 세계 제조 1등 중국, 무역 1등 중국, 군사는 바로 기술인데요. 기술 1등 미국, 2등 중국입니다. 그리고 금융, 미국이 1등 중국이 2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중 전쟁은, 지금 무역전쟁에서 기술전쟁으로 왔지만 아마도 바이든 3기 정부 또는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금융으로 갈 거다. 그래서 왜 이러냐 그러면요,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시고 나서 단 한번도 무역·보복관세 통상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취임하시면서부터 실리콘 웨이퍼를 들고서 중국을 좌초시키겠다고 했는데, 중국이 콧방귀 꺾었죠. 그러나 막상 시작이 되고 나서 정말 당황스럽고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조함도 있고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왜 트럼프 대통령은 승리하지 못했냐면, 미국을 100이라고 했을 때 중국이 제조업과 수출은 1.5배, 1.7배입니다. 그러나 기술력은 30%에서 50% 밖에 되지 않죠. 그리고 금융력은 그보다 현저히 낮은 5%에서 2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 부상을 미국은 동맹 전략으로 막는데, 이 동맹 전략을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동맹 전략 기가 막힌 전략 아닙니까? 그러나 절대 강자는 동맹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가서 하면 되죠. 미국의 동맹 전략은 다르게 생각을 하면 '절대 권력의 약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국제관계에서 수많은 것을 봤지만, G20-G7 회담, 코로나 3년 동안 수없이 했지만, 거기서 인류에 큰 도움 되는 무슨 정책, 대안 나온 적이 있습니까? 동맹은 돈 되면 동맹이고, 돈 안되면 사진 찍고 밥 먹고 헤어지는 겁니다. 돈 되면 적과도 동침하는 것이고, 돈 안되면 바로 바이바이하는 것이 동맹이죠. 그래서 이것을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대중봉쇄', 바이든 정부의 대중봉쇄는 성공했냐 그러면요. 2018년에 무역수지가 잠깐 줄었다가 그 이후로 중국은 계속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습니다. 구멍 뚫렸다는 거죠. 반도체 기술, 화웨이하고 SMIC를 통제했는데요. SMIC는 2020년에 제재를 받았지만 2021년, 22년에 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고요. 화웨이는 반도체를 못 구해서 매출액이 왕창 줄었다가, 금년도에 보면 2020년 반기에 431억 위안의 최고치를 완전히 갱신하고 465억으로 올라섰습니다. 미국의 기술 포위망이 이것이 완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미국의 반도체 제재로 중국의 반도체 생산이 10월에 제재를 하면서 줄었다가,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바라보는 미국의 미래는요, 앞으로 5년 동안 미국과 치열한 전쟁을 할 거다. 지금 무역 전쟁, 기술 전쟁만 했지만 중국은 앞으로 그것 말고 여덟 개의 전쟁이 더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중국이 뭐 할 거냐 하는 것이 '14차 5개년 계획'인데,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놀랍게도 성장이나 내수가 이게 아니고 '내셔널 시큐리티(national security)', 국가 안전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중국은 전쟁에 대비한 준비를 한다고 마음잡고 있는 거죠.

중국은 이제는 성장 위주가 아니라 거기에 안전과 기술이 같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하나는, 공부하는 정치인하고 매일 싸움하는 정치인은 크게 차이가 나죠. 중국은 당 서열 1번부터 24번까지 45일에 한 번씩 단 한 사람도 결석이 없습니다. 공부를 해요. 그 사이 얼마를 하였냐면, 시진핑 들어서 88회를 했고요. 무슨 공부를 했냐 그러면, 이런 공부를 합니다. 빅데이터·인공지능·매체융합·블록체인·양자기술·지재권보호·탄소중립·생물안전·디지털경제, 이런 걸 공부를 해요. 이것은 국무회의가 아니라 스테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조금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그 산업이나 기술을 이해하고 나서 회의를 하고 나면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바로 정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과 지도자들의 첨단 기술에 대한 이해가 결국은 LCD, 국산화 성공했고 배터리, 지금 세계 1등이고요. 그리고 반도체를 다음 타깃으로 잡고 있습니다.

중국은 1950년대 말에 원자폭탄을 개발을 하려고 하다 소련이 이제 기술을 다 빼면서, 완전히 맨땅에 헤딩해서 5년 만에 원자폭탄을 개발하죠. 지금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공급의 통제를 원자폭탄, 이것하고 똑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맨땅에 헤딩해서 원자폭탄도 만들었는데 반도체? 이거 국산화하자.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 화웨이가 7나노, 미국이 14나노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장비를 통제했다고 하는데, 7나노로 만든 칩으로 핸드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한국의 많은 언론에서는 '7나노, 그거 사진 한 번 찍어야 될 것을 네 번 찍어서 비용 무지 올라갈 거야, '수율 무지 나쁠 거야. 그러나 수율이나 수익이라는 것은 이것은 서방 세계 언어고요. 소위 말하는 '스테이트 캐피탈리즘(State Capitalism, 국가자본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수율이나 수익이 아니고 이것은 제품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자는, 수익은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것이니, 수율이 한국은 90%가 나와야 된다고 보지만 중국은 40%만 나와도 그대로 '램프 업(Ramp-up)'을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양산이 아니라 기술이 목적이요. 적자가 아니라 제품만 나오면 됩니다.

이걸 무섭고 두렵게 봐야 되는데, 여러분 반도체 기술이, 핸드폰 기술이 우리나라 기술이었습니까? 미국하고 일본에서 온 기술이죠. 그래서 중국을 우리가 조금 냉정하고 차분하게 봐야 되는 것은 미국 경제력의 73%, 대학생이 1년에 1100만 명 이렇게 나오는 나라, 그리고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이 다 중국에 공장을 만들었던 그 나라.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들의 70%가 'IC Industry'라고 얘기를 하죠. 'Integrated Circuit(집적회로)'이 아니라 'India-China Industry', 거기의 절반이 중국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럴 때 중국의 반도체 만들 수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시간의 문제지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앞으로 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중의 전쟁은 보면 결국은 상대 100명 죽으려면 나도 한 7, 80명은 죽어야 되는 전쟁인데 여기에서 관건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4년 단위의 선거제도가 우리 민주주의, 서방국가의 최대 강점이긴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와 싸울 때 최대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다 공무원'인 임명직은 전투에 목숨 겁니다. 4년 동안에 내가 당선 못되면 그 다음번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 번 정권을 잡았다 하면 미니멈 10년, 많게는 30년 까지 가는 사회주의 국가의 '늘공(늘 공무원)'은 전투가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를 타깃으로 합니다. 그래서 서방 세계는, 전투에서 목숨 걸어야 되는 이 정치인은 힘으로 누르는 것이고요. 늘공의 경우는 시간을 최대의 무기로 삼는 거죠. 4년 뒤에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최근 7년 동안에 미·중의 전쟁에서 미국에 제재 받은 중국 기업이 단 하나도 부도난 게 없다는 거죠.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을 보면, 이제 그 사이에 소련과 일본과의 전쟁이 10에서 18년인데, 지금 네 가지 전쟁을 했지만 중국과는 지금 여섯 가지 전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경우는 미국이 과거에 상대했던 일본, 소련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이에 오바마 대통령이 프레너미, 트럼프 대통령이 디커플링을 얘기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디리스킹을 얘기했지만, 만약에 내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에 성공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바이든의 정책은 단 하나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인터넷 사이트, '프로젝트 2025'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놨고 여기에 '집권하면 어떤 정책을 쓸 건가'를 900페이지 짜리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정부 조직 어떻게 할 건지 다 써놨고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왜 디리스킹이라고 말을 바꿨냐면, 바로 선거입니다.

보시면 미국은 2% GDP 성장률을 기준선으로, 선거할 때 2% 밑의 성장률이 나왔을 때, 최근 80년 이후에 40년간, 집권 여당이 재선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년도 모든 경제정책을 놓고 보면, 예측치를 보면 미국이 내년에 2% 성장을 예측하는 기관은 아무 곳도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 형편없고요. 최근 여섯 명의 대통령 중에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 최악이고, 트럼프보다 더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리스크'를 이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얘기하는 '트럼프 2.0'을 보면요. '안보 무임승차론', 이거 바이든 정책 홀랑 다 바꾼다. 그러면 우리 주한미군 비용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는 바이든 정책 다 폐지한다. 그래서 전기차 활성화 정책 폐기하고 원유 시추 계속하고, 기준금리 낮추고 법인세 인하한다. 지금 바이든 정책과 완전히 다른 정책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역에서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 도입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게 됐을 때, 세계 경제의 판세는 지금 보았던 4년과는 또 다른 세상이 돌아온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포스트 바이든 리스크'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금융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미국과 일본을 놓고 보면 1985년에 철강·TV·자동차·통신·반도체 무역하고 나서 바로 환율 전쟁이 났죠. 지금 중국과는 철강 전쟁했고 통신 전쟁·5G 전쟁했고, 지금 반도체 전쟁하고 있죠. 다음 전쟁은 뭘까요? 빅데이터로 돌려보면 금융 전쟁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여러분 한국보다도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우리보다도 총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어떻게 일본이 반도체 산업을 세계 1등 하다 다 없었냐 이거죠. 그 답은 바로 환율입니다. 그래서 1985년에 260 했던 환율을 이걸 한방에 120엔으로 53% 절상시켜서 여기서 일본 반도체, 가전 회사 다 죽여버린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세 번에 걸친 미·일 반도체 협정을 하면서 이게 일본이 사라진 거고, 그 와중에 일본의 주가는 85년 6,900에서 89년에 38,000으로 거의 6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결국은 금융 전쟁이 벌어지면 거기서 큰 먹잇감이 등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찌를 수 있는 금융의 수단들은 뭐 차고 넘친다, 기본적으로 아홉 가지 이상 되고요. 그리고 최근 500년간의 강대국들이 부상하는 것을 보면, 결국은 이게 교육이 가장 먼저고, 그다음에 기술이고, 그다음에 금융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중의 전쟁은 필연적으로 금융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미국이 당장 금융으로 중국을 죽이면 되지' 그러는데, 미국과 일본의 관계, 1985년의 일본하고 2022년의 중국을 보면 10가지가 다릅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어나면 중국은 금융시장, 외환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 넥스트 4년에는 아마 미국은 기술로도 중국의 목을 조르면서 그것을 슬슬 풀어주는 조건으로 금융시장을 개방하게 해서, 과거에 일본을 좌초시킨 것 같은 그런 스토리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이 너무 쫓 필요가 없는 것은, AI가 모든 것의 중심이고 이것이 에브리싱이죠. 하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배터리·통신이 필요하고 여기에 한국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중국을 중동으로 봐야 되냐면 거기에 필요한 희토류 금속,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이런 희토류 금속은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의 60%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제는 이 희토류를 포함한 원자재의 공급국으로서 중국을 다시 봐야 된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엔비디아가 난리지만 이 칩에서 반드시 필요한 HBM은 한국 외에는 지금 공급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너무 자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이든의 동맹 전략에서 'Fear of Abandonment(방기의 공포)', 여기서 너무 쫓 필요 없고요. 그래서 지금 동맹의 이익보다는 동맹 탈퇴의 불이익이 얼마나, 이것을 잘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미경중, 그건 레토릭이고요.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명미실중'이 답이다. 명분은 미국과 같이 가고, 실리는 중국에서 챙기는 것. 여러분, 왼발을 잘 쓰는 사람? 선수죠. 오른발 잘 쓰는 사람? 선수입니다. 그러나 양발을 다 쓰는 사람을 고수라고 얘기하죠. 우리 손흥민 선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왼발, 오른발을 같이 쓴다고요. 저는 외교나 국가정책은, 해양과 대륙을 같이 갖고 있는 반도 국가의 필연적인 숙명은 어느 한 편에 줄을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편에 줄 서가지고 세이프 하게 가는 것도 좋지만, 답은 양발을 다 쓸 수 있는 것이 그게 고수고 한국이 추구해야 되고 가야 될 방향은 양발을 다 쓰는 고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묘한 기술 전쟁의 와중에서 한국은 미국이 절절히 원하고 중국이 절절히 원하는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레버리지 걸고 자신감 갖고서 가냐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미·중 관계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1) 김영준. (2014). 비대칭 동맹에서 방기 우려에 대한 대책: 한미 동맹의 사례. 유라시아연구, 11(4), 79.

# 세계경제, 판이 바뀐다

##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2. 중국의 시각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승명호 한국일보 회장님, 이성철 사장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 한국 통상이 어떻게 가는지 간단하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건물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프랑스 파리에 있는 '판테온' 건물입니다. 특히 그 건물 앞에 이렇게 있는 저 부분은 이태리 로마에 있는 판테온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건물이고, 서구 고딕 양식의 아주 상징처럼 인식이 되는 건물입니다. 그 밑에 있는 건물은 아시겠지만 저게 LA에 있는 디즈니 콘서트홀인데요. 충격적일 정도로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유명한 현대 건축가 프랭크 게리의 작품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현시점의 국제 경제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 미국, 특히 그 중심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이 지난 4월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우리가 2차대전 이후에 만들어 왔던 국제 경제질서를 판테온에 비유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그리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 국제 경제의 구조를 저 프랭크 게리의 작품에 비교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현시점의 국제 경제질서를 재편하는 키 플레이어들의 인식의 단면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례 같아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WTO와 FTA를 활용을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왔습니다. 약 60여 개 국가들과 FTA를 우리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FTA 체제로 그동안 우리 통상 무대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최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국가들이 '경제 안보'라는 인식을 부각 시키면서 요새화되는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판도라 박스가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RA'로 알려져 있는 'Inflation Reduction Act(인플레이션 감축법)', 'CHIPS Act(반도체법)' 기타 많은 법규를 동원을 해서 지금 첨단 전략산업을 키우는 작업을 하고,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미국 내로 불러들여서 미국 중심의, 자국 중심의 공급망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에 맞서서 유럽도 지금 수많은 법규를 최근에 쏟아내면서 이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다 마찬가지로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IMF 같은 데에서는 이것을 '프래그멘테이션(fragmentation, 분절화)'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세계 경제에 앞으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요새화가 되면서 우리가 그동안 구축해 왔던 FTA의 활용성이 상당히 훼손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더더군다나 이 요새들 간에 지금 경쟁과 마찰 통상 분쟁의 소지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 단적인 사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사실 '레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대만과 미국은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지난 6월 1일 날 1차 무역 협상을 타결한 이래 12월 연말까지 2차 무역 협상을 타결을 해서, 미국과 대만이 공식적인 무역 협정을 타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러 가지, '수출통제법'이라든가 '반간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주력 기업의 임원들이 최근까지 14명이 이 반간첩법 하에 구속이 되면서, 지금 기시다 총리가 공식적으로 이 기업 임원들 석방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미국-EU 간에도 지금 여러 가지 통상 마찰의 소지가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많은 주목을 하고 있는 디지털 산업 분야에 EU가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일정 규모 이상의 큰 플랫폼 기업들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을 하고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틱톡'으로 잘 알려져 있는 '바이트댄스' 중국 기업 하나 외에 나머지 다섯 개 기업이 모두 미국 기업들이 지목되면서 지금 상당히 미국과 EU 간에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EU는 이달 초, 유럽 집행위원회의 자체 판단으로 중국이 '제조업 육성의 상징처럼 부각을 하고 있는 전기차 산업에 대해 반보조금으로 이 산업이 키워졌다'고 해서 직권 조사를 통해, 기업이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반보조금 조사를 강행을 하고 이것이 향후에 유럽-중국 간에 어떤 식으로 문제가 악화가 될지 지금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 상당히 통상환경이 험합니다. 그래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러면 흔히 하는 얘기처럼 이런 글로벌 고래들 사이에 끼어 있는, 등이 터질 위기의 새우 같은 상황이나. 저희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약 60여 개의 국가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폭넓은 FTA 네트워크가 있고요. 이게 최근에 해외에서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전 세계 어디보다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통상 연대망'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히 아시아 지역으로 올 때 중국으로 가는 것보다, 인도나 일본이나 이런 데 가는 것보다는 한국으로 지금 첨단 산업이 모이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섬유 부문부터 반도체·2차전지, 최근에는 방산·우주·항공까지, 이 전 제조부문을 망라한 폭넓은 분야의 제조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를 보시면 지금 약 75% 정도가 중간재에 집중이 되어 있는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의 산업 구조와 교역 구조는, 지금 시점에서 모든 국가들이 '공급망 다변화'로 이 어려운 통상환경을 헤쳐 나가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공급망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 잡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서 우리나라의 전략적인 가치가 매우 중요하게 되어 있고, 지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상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저희가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 통상교섭본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산업의 이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최대한 많은 국가들과 통상 연대를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FTA에 더해서, 지금 시점에서 다다음 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을 APEC 회의를 계기로 상당한,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려 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 협상을 통해서 신뢰에 기반한 14개 국가, 미국·일본·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들과 새로운 통상 연대를 강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기존에 FTA 미개척지로 남아있던 많은 국가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 또는 신흥국입니다. 이런 국가들은 관세협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FTA로는 사실 다루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가 기존 FTA를 보다 개발협력 내용을 보완한, 개발도상국들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발 문제뿐만 아니라 팬데믹 이후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에서 절실하게 요구하는 바이오 협력, 디지털 협력, 그리고 청정에너지 전환 이런 부분들을 포함한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10월 14일 날 저희가 타결을 한 UAE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첫 번째 전기를 마련한 셈이고요. 핵심광물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몽골, 파키스탄 이런 데 뿐만 아니라 조지아·세르비아·중앙아시아에 있는 기타,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탄자니아·모로코 등 많은 국가들과 EPA를 통한 통상 연대 강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PA 협상 기반조차 마련이 되지 못한 국가들과는 저희가 관세협상 부분을 아예 배제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우리의 기업들은 이 핵심광물·소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에게는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서, TIPF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산업관계를 심화시키는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지금 아프리카·중앙아시아·중동 등 많은 국가로 진출을 해서 핵심광물·소재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국가들은 지금 경제적으로 보면 외환 문제라든가 기타 많은 거시경제 문제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막대한 인프라 투자 사업까지 벌어지면서 부채위기에 직면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이해를 다루기 위해서 정례적으로, 그쪽의 산업부와 우리가 정기적으로 앉아서 우리 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부 차원의 안전장치를 만들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런 국가들과 우리 정부 간의 협의채널이 외교부나 기재부나 이렇게 쪽 흩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것을 산업부, 특히 우리 통상교섭본부로 일원화해서 우리 기업들이 실제로 진출하는 데 애로사항을 풀고 투자에 있어서 제기가 되는 여러 가지 문제의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TIPF가 여러 가지로 상당히 유용한 도구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제일 먼저 TIPF를 활용을 해서 사실 공약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新 중동 붐, 요즘 얘기하고 있는 중동입니다. 그래서 UAE랑 제일 처음 타결을 하고 그다음 바레인, 카타르 등 이후에 EU로 묶여 있는 유럽 국가들과도, 우리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헝가리·폴란드·체코 같은 경우에는 양자 관계로 우리 기업들의 이해를 지킬 수 있는 별도의 채널을 만들고 있고, 기타 많은 국가들과 지금 체결을 했는데요. 지금 아프리카·중동·중앙아시아 및 기타 많은 국가들, 특히 남미 이런 국가들과 TIPF를 통해서 우리 산업의 이해를 지키는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급망 다변화를 하는 전략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내용을 심화하는 겁니다. 신통상 의제 분야에서 우리 산업계의 이해를 반영하는 새로운 규범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디지털 경제동반자협정'이 주요한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많은 개도국들과 신흥국들은 지금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디지털 부분에 있어서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싱가포르와 디지털 통상협정을 체결한 이후에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가 묶여 있는 DEPA(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에 처음으로 가입을 했고 EU와 디지털 통상협정을 그저께 출범 시켰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IPEF에 있는 국가들과도 이 디지털 무역협정이 진행될 거라서, 디지털 산업의 가장 중요한 상호 호환성과 연결성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우리 디지털 산업의 발전 기반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산업 부분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지금 많은 개도국들과 신흥국들은 바이오 분야에 있어서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데 굉장히 절실한 필요를 느끼고 있는데 이번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가 UAE와 '바이오 경제동반자협정'을 만들어서 선을 보였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첨단 정밀화학·친환경 소재, 그리고 제약·의료기기 등 우리의 미래 유망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에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싱가포르·영국·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우리 바이오 경제동반자협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기타 신재생에너지·수소·탈 탄소·청정에너지 육성을 하는, 인프라를 만드는 작업을 통해서 에너지 안보 차원의 공급망 협력을 만드는 '그린 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부는 미국, 유럽, 중국·아세안, 일본 등과 IPEF 그리고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그다음에 FTA 업그레이드 작업을 통해서 그동안 약화가 되어 있던 경제·산업·통상관계를 다시 공고히 하는 작업을 할 것이고요. 아까 설명드린 신통상 의제 부분을 활용해서 EPA 나 TIPF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그동안 FTA 미개척지로 남아 있던 중동·서아시아·중앙아시아·아프리카·남미와도 통상 연대를 구축하는 작업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표방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에 발맞추어 우리도 글로벌 통상의 중추 국가가 되는 작업을 지금 해 나가고 있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저희가 표방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선진국 뿐만이 아니라 개도국, 신흥국에서 자본, 기술, 그리고 인력이 다시 한국으로 모이는 '글로벌 통상·투자의 허브'로 만드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그냥 원대한 꿈이 아니라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작년에 310억 불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한 데 이어서 올해도 아마 그 기록을 경신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3분기까지 이미 240억 불에 달하는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비단 규모에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로 모여들고 있는 투자의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가 저임금으로 중국과 인도에 나가는 투자를 우리나라로 끌고 들어올 수도 없고 끌고 들어올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투자는 반도체·제약·바이오 이런 분야에 있어서 이 첨단 기술 분야의 투자가, 그런 필드 투자가 상당히 많이 모이고 있는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세계 최고의 첨단기업들이 R&D센터를 지금 한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제로 다른, 아까 요새화되고 있는 국가들과 견주었을 때 국내 시장이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만 놓고 보면 사실은 전 세계 5위, 6권에 이미 도달할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의 수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국내시장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처럼 요새를 만들어서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전략을 쓸 수는 없고요. 우리는 내보내고, 나가야 됩니다. AI 반도체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으로 나가 AI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 개발을 같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기술협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대신 다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첨단산업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그 공급망의 단계에 집중해서 우리 산업 정책을 시행하고, 그런 부분에 비교우위를 살리고, 그런 부분에 전 세계에서 투자를 받고 유치를 해서 우리 한국의 제조업 역량을 계속 키워 나가는 것이 우리 통상과 산업의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계속 추진해서 우리 산업계의 이해와 우리 국익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세계경제, 판이 바뀐다

## 특별대담: 미·중 경제 패권전쟁 속 한미동맹

**정외영**  
KOTRA 혁신성장본부장



**마에카와 나오키**  
JETRO 서울사무소장

### “정외영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코트라(KOTRA) 혁신성장본부장 정외영입니다. 먼저 오늘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 일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마에카와 나오키 제트로(JETRO) 서울 사무소장님과 '한일 간 민간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누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소장님이 아직 한국어가 조금 부족해서 동시통역으로. 그리고 짧은 시간 최대한,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에카와 소장님과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와 인사를 드리고, 다음으로 한국과 일본의 경제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각자 상대국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과 한일 간 민간 부분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마지막으로 대담을 정리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장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 “마에카와나오키

네, 안녕하세요? 제트로 서울사무소장 마에카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8월에 한국에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이 좀 지났습니다. 작년 8월은 한일 관계가 대단히 좋은 방향으로 막 움직이기 시작한 때였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방역조치가 완화되어서 한일 관계가 서로 왕래가 가능해진 무렵이었기 때문에, 참 좋은 시기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 전임은 딱 코로나 팬데믹 때여서, 3년 동안 한국에 있었는데 지방 출장을 세 번 밖에 가지 못했다고 해서 참 안타까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회식도 많이 하고 있고요, 지방 출장도 자주 가서 한국 생활을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 “정외영

저는 호텔에서 있으면서 일본에서 주재원 생활을 한 12년 정도 했습니다. IMF, 한일 월드컵,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등 굵직굵직한 사건과 상황이 발생할 때 일본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백그라운드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제트로 소장님과 마주 앉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일 간의 경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서울사무소장으로 계시면서 우리 한국 경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잠깐 들려주시겠습니까?

### “마에카와나오키

네, 감사합니다. 제트로 서울사무소장으로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의 경제를 설명하는 기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먼저 첫 번째로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fundamental)은 대단히 강하다'라는 것을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라고 할까요? 지금 현재는 성장이 둔화되어 있지만 이것은 한국 경제를 주도하는 수출이 잘 늘지 않기 때문인데, 이것은 한국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시장 쪽이 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설비 투자도 좀 지금 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 글로벌 상황이,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반도체·자동차·2차전지, 또 바이오·의료·약학 등 대단히 국제 경쟁력이 강한 수출 산업이 한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성장궤도를 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기·중기적인 전망이고요. 장기적인 전망을 말씀드리자면 우려 사항이 있다면 고령화, 앞으로 더 진행될 고령화가 있고, 또 인구감소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약간 우려되는데 이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 “정외영

감사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최근 수출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일본 경제신문을 먼저 봅니다. 그런데 어제 일본 경제신문에 주요 기사로 나온 게 '엔 달러 환율이 151엔으로 되었다, '이것은 33년 만에 최저다'하는 그런 기사가 크게 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요타의 2023년도 상반기 영업이익이, 일본은 상반기가 4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도요타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이고 그리고 순이익률도 테슬라를 추월했다'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보니까 영업이익은 상반기에 2.6조 엔을 달성했다고 하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전 2019년 상반기에 보면 그 당시에 영업이익이 도요타가 1.4조 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두 배 정도 달성했고 그리고 순이익률을 보니까 도요타가 11.8%, 테슬라가 9.4%. 아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닛케이에서 분석하기로 도요타가 이렇게 역대 최대의 수익을 낸 이유는 '엔저 효과'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엔저 효과가 크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지속되고 있는 엔저가 일본 경제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표들을 보면 도요타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일본 기업을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도 최근에 3%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임금 상승률도 일본이 거의 임금이 정체되어 있든지 과거 최대 임금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임금도 3%대 후반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것은 1993년 이후 최대 상승폭이라고 그러합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흔히 '투자의 귀재다'라고 이야기하는 워렌 버핏이 2020년 8월에 일본 5대 종합상사 주식을 대거 매입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일본에 있었는데 저도 왜 그렇게 주식을 대거 매입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알았으면 저도 미쓰비시상사라든지 미쓰이 등 일본 5대 종합상사 주식을 샀더라면 많게는 더블 정도 수익을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워렌 버핏이 금년에 다시 주식을 추가 매입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매입한 이유가 뭐냐, 했더니 워렌 버핏의 말은 '일본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게 이유다', 과거에도 사업 다각화 많이 추진했습니다만은, '앞으로 10년, 20년은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을 계속 보유를 하겠다' 그런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니도 역대 최대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소니는 어떤 기업이었습니까? 예, 가전제품의 아마 세계 최고 기업이었는데 지금 가전제품은 소니에서 매출로 보면 아주 미미한 거고요. 소니가 그 이후에 사업 다각화를 해서 지금은 이미지 센서라든지 게임, 그리고 네트워크와 영화, 음악, 그리고 금융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기업들뿐만 아니고 최근에 일본 정부도 들여다보면 일본 정부가 DX(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 전환), 디지털이 조금 늦었다고는 합니다마는, 지금 DX 쪽에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리고 그린 테크놀로지, 스타트업 육성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최근 변화하고 있는 국제 정세에 따라서 정책도 다각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제조업에서 '대전환'이라고 할 정도로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일본 경제가 다시 턴어라운드(turnaround)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시 우리 한국과 일본이 서로 경제 부문, 민간 부분에서 협력을 가속화해서 같이 성장하는 기회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일본과 우리 한국에 대한 경제 현황과 전망을 간단하게 서로 각자 의견을 나눠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글로벌 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최근에 큰 화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민간부문의 협력이 있어서 유망한 분야는 어떤 게 있을까. 최근에 주요국들을 보면 첨단산업 보호 그리고 식량자원의 무기화, 자국 및 동맹국 우선주의가 심화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러한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에 따라서 한일 간에 경제 협력 분야를 확대해야 될 텐데요. 어떤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 하면 양국 간에 서로 도움이 되고 발전할 수 있을까요?

### “마에카와나오유키

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단히 유사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더 공조를 해야 하는 것은 어떤 분야냐면, 제가 먼저 들고 싶은 것은요, '스타트업의 공조'입니다. 여러 곳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는 역시 파격적인 혁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타트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 앞서 말씀 나왔던 DX라든지 또 GX(Green Transformation, 녹색 전환)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대·공조를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의영

아마도 소장님하고 저하고 생각하는 방향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스타트업, '한일간에 파괴적일 정도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아마 그게 혁신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과 일본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타트업 기업에 오픈 이노베이션 기회를 확대하고,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한일 간의 국경을 초월한,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장님께서 한일 간의 스타트업이 협력한 그런 사례를 몇 가지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 “마에카와나오유키

한국 스타트업 기업이 일본 기업과 협력을 한 사례, 예를 들어 '니토리'라는 일본 기업, 또 '교세라' 이런 일본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 측의 기업명이 지금 금방 떠오르지 않는데요. 그리고 또 매년 12월 일본에서는 '이노베이션 리더스 서밋(Innovation Leaders Summi, ILS)'라고 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행사가 개최됩니다. 일본의 대기업이, 약 100개 사 정도, 스타트업 기업들과 미팅을 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는데요. 여기에도 참 많은 한국 기업들이 참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의 인기가 일본에서 매우 높다고 들었습니다.

### “정의영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니토리는 유통기업이죠, 그리고 교세라는 아주 유명한 기업이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소장님께서 국내 스타트업 기업이 일본의 유통 대기업, 그리고 제조 대기업하고 협력을 해서, 말하자면 오픈 이노베이션 과정을 거쳐서, 우리 스타트업이 일본을 진출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들었습니다. 코트라에서도 우리 스타트업 기업이 일본을 포함해서,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도쿄에는 'IT 센터'라고 해서 우리 IT 기업들이 일본에 처음 진출할 때 여러 가지, 사무실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관련 기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일본 도쿄에 IT 센터를 설치해 두고 있고요. 그리고 제조업 분야 스타트업 기업, 그리고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들의 일본 진출을 위해서는 또 '글로벌 파트너링 센터'라고 해서 GP 센터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사무실이 제공되고 비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제공되는, 한일 간의 스타트업 교류를 확대하게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스타트업 협력도 아주 필요하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이야기한 게 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DX하고 GX인데 소장님, DX 분야에서는 어떤 협력이 가능할까요?

### “마에카와나오유키

네, DX에서는 아마 일본 쪽이 한국 기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DX 시장은 일본이 지금 성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2030년에는 3조 엔 규모의 시장이 될 것이다. 아주 몇 없는 성장기회 중에 하나이지만, '2030년에는 일본에 IT 엔지니어가 약 70만 명 이상 부족할 것이다'라는 추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한국의 IT 기업에는 일본어를 말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회가 있고요. 또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의 IT 기업과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 “정의영

일본이 사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화가 조금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2020년까지 도쿄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당시에 특히 지자체, 중앙정부의 행정 부문에서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났습니다. 요즘 시대를 4차 산업 혁명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고 산업의 스마트화 그리고 융복합화, 산업구조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AI-빅데이터를 통한 산업과 디지털 결합이 심화되고 있고,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면·비대면의 융복합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일 간의 신산업에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코트라에서 한일 간 협력 사례로, 성공사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코트라에서는 일본 지자체의 디지털화를 위해서 전자정보 실증사업을 참여해서 실제로 채택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ICT 분야 관련해서는 우리 한국의 ICT 중소·중견 기업들의 일본 진출을 위해서 ICT 분야 특화 비즈니스 미팅 자리를 마련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 한국이 일본보다 조금 빠르다고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마도 전기 자동차, 모빌리티 분야가 아닌가 싶은데 나고야에서 차세대 모빌리티 한일 협력 사업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한국하고 일본을 단적으로 비교를 한다면 일본은 기술 개발, 원천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우리 한국은 그 기술을 응용해서 세계시장에 발 빠르게 나가는 그런 특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일본 간에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하는 그런 모델이 속속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께서 그린 테크놀로지, 예. 최근에 보면 EU가 '탄소국경조정제(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금년 10월에 시행을 했고 그 외에도 미국, 일본에서도 청정에너지 육성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그린 성장 이행 사업이라든지, 친환경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은 한국과 일본이 공히 직면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한일 간의 그린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소장님께서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 “마에카와나오유키

네, 이걸 협력할 수 있고요. 꼭 우리가 협력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일본도 에너지를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역시 청정에너지 전환, 특히 수소라든지 암모니아 등등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해외에 대한 투자를 한다면 한국 쪽이 더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해외에서 만든 수소를 어떻게 수송·운반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일본에는 아마 부산 경유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한국과 일본은 서로 상호 협력을 꼭 해야 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스타트업인데요. 탄소의 포집 기술이라든지 재이용의 기술을 생각해 보았을 때 서로 새로운 기술, 흥미로운 기술이 나온다면 앞으로 거기에서 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의영

예, 앞으로 저희들이 극복해야 될 과제가 탄소중립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소장님께서서는 탄소 채집이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협력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코트라에서도 탄소중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직을 새로 신설을 한다든지 해외에서 사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코트라가 무역투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국제감축 전담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온실가스 국제감축을 우리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 개발을 한다든지, 사업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가져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코트라에서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라고 해서, 해외의 11개국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탄소중립 관련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우리 기업이 현지에 진출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이 부분에서 협력이라고 하면, 제3국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프로젝트를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협력할 방안은 없을까요 소장님?

### “마에카와나오유키

제3국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조, 또 수송 등에서도 서로 협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일본 기업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활약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환경 여건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와 함께 협상 또는 협의,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또 다른 나라는 다 저마다 그 현지 국가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적어도 제조업에 공통점이 많은 한국과 일본은 연대해서, 인도라면 인도 정부를 상대로 해서, 함께 저희가 이야기를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국에서의 그런 진출, 투자도 더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 “정외영

한국과 일본은 경제 산업·구조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고, 앞으로도 가져가야 될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대담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한국과 일본의 교역 규모를 보면 835억 달러로, 일본은 우리나라의 네 번째 교역 상대국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기업 간에 새로운 비즈니스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코트라와 제트로가 한일 민간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양국 간에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교역 확대를 위한 상호 가고 역할을 다했으면 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인사를 드리고요, 소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 “마에카와나오유키

네. 한국과 일본,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또 하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있다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대립 관계라는 것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 일본도 이러한 가운데 신중하게 대응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대단히 좋아서 서로 소통을 하기 좋다는 점은 매우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한국과 일본이 손을 맞잡고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외영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 한국 주력산업의 생존전략

## 2차전지, 제2의 반도체 될 수 있다

선양국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석학교수



예,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선양국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신 한국일보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제2의 반도체 될 수 있나?' 주제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차전지 산업의 성장 잠재력입니다. 아까 소개를 잘 해주셨지만은, 지금 보면 전기차 보급 확대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알려진 대로 32년 경에는 신차의 3분의 2를 전기차나 수소차로 판매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EU는 35년도에 내연기관의 신차 판매를 전량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35년에 신차의 50%를 친환경 차인 전기차나 수소차로 판매를 해야 된다는 걸 발표하고 있어서 전기차 보급이 가속화될 거고 30년까지 2021년 대비 성장이 한 13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020년에는 우리 반도체가 2차전지보다는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만 2030년 경에는 2차전지가 반도체보다 약 두 배 정도 큰 시장으로 성장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2차전지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 효과도 큽니다. 특히 2차전지 소재 시장, 우리나라는 양극재 시장의 회사들이 좋은 회사들이 많지만은, 이런 소재 시장도 굉장히 같이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큰 시장은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에 대한 시장입니다. 지금은 이제 전기차가 막 상업화가 돼서 배터리를 많이 활용할 수 없습니다만, 약 10년 후 203, 40년 경에는 폐배터리 시장도 큰 시장으로 형성될 것이고 연간 성장률도 역시 한 33%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2차 전지의 성장 잠재력은 무궁무진하고 굉장히 큰 시장이 생성되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 게 가장 큰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만, 굉장히 많은 이슈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2차전지 밸류체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보면 광물자원, 광물자원은 천연흑연이라든지 리튬, 코발트, 특히 니켈입니다. 이런 광물들의 매장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다양하게, 넓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계획경제에 의거해서 이미 이 세계의 중요한 광물시장을 거의 선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물 매장'뿐만 아니라 '광물 가공'도 중요한 이슈죠. 그래서 광물 가공 같은 경우는 구상흑연은 100% 중국에서 시장을 확보하고 있고, 리튬이나 니켈 이런 쪽도 한 7, 80% 정도는 전부 다 중국이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물 가공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게 친환경적인 시장이 아니죠. 폐수라든지 이런 이슈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기술을 가진 중국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 실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원료를 이용해서 '2차전지 소재', 2차전지 소재는 주로 크게 봐서는 음극재와 양극재입니다. 그런데 음극재 시장보다는 양극재 시장이 훨씬 큰 시장인데, 음극재도 마찬가지로 양극재에서도 중국이 한 65% 정도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 소재를 가지고 2차전지 셀을 만드는 경우는 이 역시 중국이 한 60% 이상의 시장, 마켓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은 한 24% 정도의 시장입니다.

그다음에 2차전지의 주요 시장 별 점유율입니다. 이런 시장이 형성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고찰을 해보면,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아까 말씀대로 중국이 6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큰 시장을 3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중국 시장이 가장 큽니다. 지금 현재 한 300GWh(기가와트시) 정도 되고, 그다음에는 유럽시장입니다. 한 120GWh. 그다음에 미국시장, 약 65GWh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보시면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중국에서는 1.8%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쇄국·보호무역 정책, 그 보호무역 정책인지 어떤 정책인지 표현하기도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중국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 무역이 너무너무 큽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중국시장을 제외하고서는 유럽시장에서는 한국, 우리가 차지하는 시장 한 64%, 북미시장도 한 36%인데 일본이 많은 이유는 파나소닉이 테슬라에 많은 배터리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북미시장에서도 우리가 큰 포션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시장에서 보면 중국의 이 시장 점유율이 너무 크다. 중국의 그런 보호무역 정책 때문에 그렇고,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는 한국이 한 53% 정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밑의 그림을 보시면은 각 나라 별로 대표적인 기업들의 점유율입니다. 일본은 아시다시피 파나소닉, 우리나라는 LG엔솔(LG에너지솔루션), 중국은 CATL입니다만 우리나라의 LG엔솔이 차지하는 비중들이 해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ATL이, 중국 회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특히 올해 상반기 점유율은 CATL이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EV(Electric Vehicle, 전기차)가 얼마나 성장할 거냐는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EV가 굉장히 큰 시장을 생성할 거다 생각하고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각 회사들의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점유율입니다만 해가 가면 갈수록 중국 회사들의 점유율이 커진다, 이게 현실이고. 그다음에 우하단을 보시면 이게 셀 가격입니다. 기술과 매스 프로덕션(mass production)이 됨으로 인해서 셀 가격은 상당한 정도로 많이 감소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이것은 캐소드 머티리얼(cathode materials, 양극재)의 포캐스트(forecast)입니다. 왼쪽 상단의 그림을 보시면 'NMC 파우치 타입 셀'을 하나 만드는 데 가격이 한 kWh(킬로와트시) 당 125불 정도 드는데, 그중에서 들어가는 원료물질들에 대한 가격 비중입니다. 보시면 가장 큰 게 캐소드 머티리얼입니다.

## 2차전지, 제2의 반도체 될 수 있나

캐소드 머티리얼이 가장 크고 지금 한 30%, 셀에 따라 다르지만, 40% 정도 차지하는 그런 비중도 있습니다. 음극이나 전해질 등등의 이런 비중도 있지만 소재 시장 중에서 가장 큰 시장은 양극재입니다. 그래서 양극재의 비중에 대한 것을 오늘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3원계, 'NCM' 3원계(니켈, 코발트, 망간)에 대한 시장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측 하단의 오른쪽에 보면 가격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가격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하는 3원계, 'NMC'라고 표시해 놓은 이런 재료들의 가격이 중국이 생산하는 주력 제품인 'LFP' 가격보다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배터리들이 한국 전기차 시장을, 이 가격적인 측면을 가지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한국 시장도 넓혀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왼쪽 하단을 보시면은 한 쪽 그림에서는 각 소재 별 시장의 포캐스팅(forecasting)을 해 놨는데 예로, LFP 시장도 앞으로 한 2030년 경에는 전체 양극재 시장의 한 40 내지 45% 정도를 차지할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LFP 모듈을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이런 쪽을 고민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유럽 쪽에서 프로덕션 캐퍼빌리티(production capability)를 각 회사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유럽 쪽에서는 그렇게 큰, 미국 같은 경우는 뒤에 말씀드릴 텐데 미국은 IRA(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감축법) 법으로 상당히 중국 회사들의 이런 부분을 막아 놨습니다만 유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LG엔솔이라든지 삼성 SDI, SK 등도 유럽에서 공장을 짓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 회사들, 특히 보시면 CATL이라든지 BYD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유럽 쪽 시장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걸 좀 보기 그렇습니다만 주로 그 북미시장, 노스 아메리카 시장인데 미국 본토에서는 주로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들이 굉장히 공장을 많이 짓고 시장을 많이 확보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IRA 법으로 인해서 중국 시장, 중국 회사들을 미국에서 막아놨기 때문에 중국 회사들은 우회로 갑니다. 우회하는 게 주로 멕시코 가서 미국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튬 2차전지 4대 소재입니다. 4대 소재라 하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물론 다른 부품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주로 큰 소재이고 대부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양극재가 가장 배터리, 셀 만드는 한 40% 정도를 차지하게 때문에 가장 큰 비즈니스가 생성될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양극재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기자동차의 리튬전지 개발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사실 전기자동차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1890년대 후반에 '납축전지'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전기차가 개발되었고, 그래서 마차 시대로부터 전기차 시장이 생성되었습니다. 해서 상업적으로도 쓰이곤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가솔린 자동차, 내연기관 차가 나오므로 인해서 주행거리라든지 급속 충전이라든지 오늘날의 그런 이슈와 같은 것을 겪으면서 전기자동차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반면 최근에 테슬라부터 이니시에이션(initiation)을 함으로 해서 전기자동차가 다시 리바이벌(revival) 된 상태인데. 최근의 전기자동차 역사를 살펴보면 1세대는 2010에서 15년 사이에 '전기차 가능성을 확인한 시대'다. 그때 주행거리는 한 200km 언저리였죠, 언저리였고. BMW 'i3'라든지 이런 차들이 대표적인 차였고. 그다음에 2세대 차는 2020년까지, 주행거리가 한 300km 근방으로 내는 그런 전기차였는데 아마 이 당시에는 '내연기관 하고 경쟁을 시작할 수 있는 시대'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 3세대는 한 2021년 이후에 주행거리가 450에서 500km 정도 되는 이런 차들이 이제 3세대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전기차 3세대는 '전기차의 대중성이 확보된 시기'이고, 우리나라의 차들 중에서 기아의 'EV6'라든지 '아이오닉 5'라든지 이런 차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4세대 차는 주행 거리가 한 600km, 700km 되는 그런 전기차들이 곧 나올 거고 그런 전기차들이 나오면 실제적인 내연기관 차하고 경쟁에 이겨서 전기차 시대가 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기자동차의 개발 동향입니다. 전기차가 아직도 우리 소비자들 이 보기에는 좀 모자라는, 성능이나 모든 면에서 조금 떨어지지만 다섯 가지 정도의 방향으로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가격입니다. 가격이 정부 보조금 없이 내연기관 하고 실제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주행거리입니다. 주행거리가 한 500km 언저리인데 아직도 우리 소비자들은 그것도 만족스럽지 못하죠. 그래서 주행거리가 700 내지 800km 가는 그런 전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또 큰 불편 중의 하나는 급속 충전입니다. 급속 충전을 지금은 한 30분 이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목표는 한 15분, 바라기에는 10분 이내에 충전이 가능한 그런 급속 충전 기술이 개발 되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수명입니다. 지금 전기차가 시중에 많이 다니는데 이 수명이 '미니멈 한 10년 이상, 바라기에는 15년 어떤 경우에는 한 20년 정도는 쓸 수 있는 수명을 확보해야 되겠다'하는 수명 개발. 그 다음에 안전성입니다. 내연기관차도 불이 많이 납니다만, 내연기관차 불나는 것은 별로 신문에 안 나는데 전기차가 불이 났다 그러면 굉장히 이슈가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만 어쨌거나 '안전성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다섯 가지 방향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전기차의 원가구성을 보면 배터리팩이 한 45%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가, 전기차의 한 50% 정도가 배터리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전기차 가격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죠. 그래서 배터리팩 가격이 내연기관차하고 경쟁이 되는 100달러 이하, kWh 당 100달러 이하가 되는 2024년, 내년 정도 되면 정부 보조금 없이 내연기관하고 경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격입니다.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가격적인 요인 중에서 가장 큰 이슈가 리튬하고 니켈입니다. 물론 코발트도 있습니다만, 코발트는 '니켈 리치(Ni-rich)' 쪽에서는 많이 쓰는 원료가 아니라서 니켈이나 코발트 가격이 굉장히 플러그스테이션이 심합니다. 시장에 연동돼서 굉장히 플러그스테이션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에 따라서 많이 바뀌니까 어쨌거나 이 가격이 안정화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향후 전기차는 니켈 리치, 하이 니켈로 갑니다. 그래야 주행거리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니켈 수요가 예측이 될 거고, 그래서 리튬 수요도 오른쪽에 보시면은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보시면은 25년 경에는 공급을 상회하는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데, 어쨌거나 폐배터리의 리사이클링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게 되겠습니다.

## 2차전지, 제2의 반도체 될 수 있나

그다음에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의 또 다른 이슈는 양극재 비용을 절감해야 된다. 양극재는 리튬이나 니켈이나 이런 건데, 코발트가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희귀 금속이고. 그래서 코발트를 적게 쓰거나, 코발트를 안 쓰는 소재를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니켈 함량이 증가할수록 가격이 떨어집니다, 코발트 양이 적어지고. 근데 LFP, 'LiFePO4'라는 저게 LFP입니다. 3원계인 NCM 소재는 LFP와 가격적인 측면이 큰 차이가 납니다. 따라갈 수가 없는, LFP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양극재의 개발 방향은 코발트를 적게 쓰고, 가능하면 코발트 프리인 소재를 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주행거리입니다. 주행거리는 니켈 함량을 많이 쓰면 쓸수록 주행거리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주행거리 한 240km 일 때는 니켈이 한 50% 정도 되는 NCM523이라는 재료를 썼고, 주행 거리가 한 380km 갈 때는 니켈이 80% 대인 NCM811 이런 재료를 썼습니다. 그다음에 450km 정도 될 때는 니켈 함량이 거의 90%, 소위 시중에서 '구반반', 니켈이 90, 코발트 5%, 망간 5%를 그렇게 구반반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차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주행거리를 늘리려면 우리는 아직도 니켈 함량을 더 올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명입니다. 수명은 주행거리가 늘어나면, 수명 특성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그림을 보시면, NCM 622-811-90 이렇게 보면 사용 횟수에 따라서 주행거리가 622이나 811 경우에는 상당히 주행거리가 줄어드는 폭이 작습니다만 NCM90, 90%짜리 양극재를 쓰는 경우는 초기 주행거리는 굉장히 늘어나지만, 오랜 주행에 따라서 성능이 획기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양극재, 새로운 양극재라는 게 '농도구배형 양극재'인데 새로운 구조를 갖는 양극재를 쓰면 이런 주행거리, 사용 횟수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새로운 재료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급속 충전입니다. 급속 충전을 좌우하는 쪽에서는 음극입니다. 양극보다는 음극인데요. 음극 소재에서 그래파이트(graphite)보다는 실리콘(silicon), 실리콘을 많이 집어넣으면 넣을수록 급속 충전 특성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흑자는 실리콘이 앞으로 중요한 음극 재료로서 생각하지만, 실리콘 자체로는 어렵습니다. 실리콘은 문제가 여러 가지 있고 안전성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래파이트하고 실리콘을 두 개 섞어 쓰는 컴포지트(composite), 복합체라고 합니다. 복합소재를 개발하는데, 어쨌거나 복합소재에서 실리콘 양을 증대시키면 증대시킬수록 용량도 증가하고 급속 충전 특성도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급속 충전 특성이 좋아지면 또 수명이 떨어지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연구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고 실리콘 양을 어쨌거나 많이 올리려고 하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재 이슈입니다. 왼쪽에 있는 셀룰러폰(cellular phone), 10Wh(와트시) 짜리입니다. 셀폰도 사실은 화재가 많이 났죠.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거의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만, 셀룰러 폰에서 터져도 그렇게 우리가 화상을 입는 다든지 이런 이슈가 있는데, 그 반면에 EV는 용량이 100kWh입니다. 10Wh 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큰 배터리죠. 이런 배터리에 불이 나면 사람이 다칠뿐만 아니라 더 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이슈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는, 안전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리튬 이온 전지에서 쓰이는 일렉트로라이트(electrolyte), 액체 전해질에서 나온다. 그래서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바꾼 고체 전해질, '전고체 전지'를 개발하면 이런 안전성 문제, 불이 나는 화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 이것은 너무 복잡한 이야기입니다만, 그 전고체전지를 쓰면 양극재에서 문제가 많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양극재의 특성이 잘 안 나옵니다.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시간도 짧고 복잡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양극재의 성능을 리튬 이온 전지에 쓰는 것만큼 발휘를 못한다. 그래서 성능을 좋은 전지를 만들기가 전고체 전지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 물론 음극재 이슈도 있습니다만, 양극재 이슈가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폐배터리, 이를 활용해서 자원을 재활용해야 된다는 당위성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 형성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지금은 해외 광산에서부터 광물을 채굴을 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원료를 갖고 와서 양극 소재를 제조하고, 그다음에 2차전지를 제조하고, 그다음에 1차 사용은 전기차로 쓰는 거죠. 전기차에서 버려지는 이 배터리는 아직도 성능이 괜찮습니다.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ESS 용으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에 쓰고 그다음에 이 성능이 감소가 되면 이것을 폐전지에서 광물을 추출해서 다시 양극 소재를 제조하는 이런 순환 사이클로 가면, 이걸 소위 '도시광산'이라 그러죠. 도시광산이 되면 우리가 해외에서 원료를 사 오는 이슈들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시장들이 크게 형성되고 우리나라도 이런 쪽의 기술을 많이 개발해야만이 원료 단에서, '업 스트림(up-stream)'인 원료 단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극재의 이야기인데요. 양극재 이야기, 이것은 너무 복잡한 이야기니까 그만하고요. 그래서 양극재는 이슈가 아까 말씀드렸던 니켈 함량이 증대되면, 즉 주행거리를 늘리면 늘릴수록 사용함에 따라서 주행거리가 많이 줄어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을 해야만이 전기차를 사용할 수 있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기차 사가지고 1년 쓰다가 버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행거리가 긴 그런 전기차이면서도, 오래 사용하면서도 주행거리가 긴 차를 원하는 거죠. 그럴 때 가장 큰 걸림돌이 양극재입니다.

## 2차전지, 제2의 반도체 될 수 있나

그래서 제가 개발한 양극재는 그런 이슈에 대한 스트래티지(strategy)라고 할까, 그런 기술을 상당히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도구배형 양극재입니다. '컨센트레이션-그라디언트(Concentration-Gradient)'라 그러는데, 이런 양극재를 제가 개발을 하고 저희가 한국 회사들한테 라이선싱을 해서 상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극재들은 2018년에 나온 기아 '니로', EV 쪽에 쓰였고 그다음에 2020년 현대 '코나' EU 모델입니다. EU 모델 쪽에도 쓰였고, 작년에는 포드의 픽업 트럭인 '라이트닝'이라는 데에 쓰였습니다. 굉장히 앞으로 큰 시장이 형성될 거고 주행거리도 늘리면서 수명이 좋은, 그런 양극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니켈이 90%, 빨간색이 니켈이 90%인 일반 양극재입니다. 일반 양극재고, 파란색이 90%인 농도구배형 양극재인데. 만들어서 수명 특성을 비교해 보면 한 1000 사이클, 천 번 사용 후에 일반 양극재는 68% 정도 수명을 보이지만 제가 만든 농도구배형은 한 88% 정도. 이렇게 대폭적으로 성능을 개선했다, 그래서 주행거리를 늘리면서도 수명을 대폭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른쪽은 '네일 페네트레이션(nail penetration)'이라고 해가지고 충전을 시킨 후에, 이게 파우치 셀입니다. 파우치 셀 관통 실험을 합니다. 이 관통 실험을 하면은 일반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불이 나는데요. 이 양극재는 불이 안 납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온도가 한 70, 75도 정도 올라가 있는 그런 거고요. 오른쪽은.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양극재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 주력산업의 생존전략

## 한국의 경제협력 전략: 시장을 넓혀라

**김수완**  
한국외대 중동이슬람전략 교수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김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남아시아팀장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허윤

네, 오늘 '한국 주력산업의 생존전략, 인도·아세안·중동으로의 시장 확대' 세션 사회를 맡은 서강대학교 허윤 교수입니다. 오늘 주제는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또 우리 경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한국일보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간이 한 60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 최고의 전문가분께 각각 하나의 질문씩을 드리고 그 이후에 공통질문을 통해서 서로 함께 고민하고 또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정곤 박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도가 과연 제2의 중국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상당히 생각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하고 인도는 2010년에 이미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죠. CEPA를 발효시킨 바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의 경제 교류와 협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좀 한 번 간략하게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수출 시장, 투자처 그리고 생산기지로써 인도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한국 경제 입장에서 한 번 냉정하게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곤

네, 코라시아 포럼 이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인도가 제2의 중국이 될 수 있느냐' 결국 이게 한국의 입장인데 결국 중국과 같이 거의 전 산업에 걸친, 특히 제조업에 국한한다면 그런 정도였던 시장 그리고 생산기지가 될 수 있는가? 제2의 중국 이런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 그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인도가 G3, 그러니까 세 번째로 경제규모가 큰 나라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하고의 사실 경제나 산업 경쟁력의 격차는 사실 G3가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GDP로, 규모로 단순히 비교를 해보면 인도가 중국에 한 15년 뒤져 있습니다. 거의 정확하게 1인당 GDP도 그렇고요. 그래서 GDP로만 보면 1인당 GDP 같은 경우엔 중국이 인도의 한 다섯 배 됩니다. 인도는 이제 최근에 2000을 넘었고 중국은 12,00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 정도의 격차가 있고, 사실 무역규모로 봤을 때는 수출로만 보면 중국이 한 인도의 8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의 총 부가가치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사실은 인도가 중국에 비해서 훨씬 낮고요. 그런 측면을 보면 사실 G3가 된다 하더라도 인도가 어떤 시장으로서 그리고 생산기지로써의 역량은 중국하고 격차가 당분간은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사실 지금의 인도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거시경제 안정성이라든지 또 시장의 규모 그리고 인구에 어떤 연령, 평균 소비자 연령이 인도가 29, 30세 그래요. 그런데 중국은 이미 40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 그리고 인도 정부의 특히 그 모디 총리의 강한 정치력 그리고 일관성 있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인도의 미래를 밝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본다면 사실 인도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시장이나 생산 측면에서 중국을 대체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별로 없으시겠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중국에 이은 중요한 개도국 시장 그리고 생산기지로 올라갈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인도가 경제적인 잠재력도 큰 나라지만 사실 최근에 미·중 갈등 하에서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사실 그동안 인도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분야에서도 외국인 투자,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데서 투자라든지 협력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인도 역시 이에 발맞추어서 굉장한 정부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인도의 어떤 국내 경제·정치 상황 그리고 대외적인 상황이 상당히 인도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 나라다 생각이 들고. 그동안 한국과 인도의 무역은 사실 투자도 그렇지만 인도 그리고 한국 두 나라의 잠재력을 감안하면 꽤 좀 부족한 편이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대인도 무역은 대략 우리나라의 대세계 무역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갔고 투자는 그에 비해서 훨씬 더 약소한데, 사실 우리나라 투자가 대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갔는데 사실 삼성이라든지 현대차, 뭐 섬유 분야 그리고 효성이라든지 또 식료품 분야, 롯데 같은 기업들 또 바이오 분야 이런 데서 사실 대부분의 우리 대기업들이 진출을 해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사실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인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고요. 현대도 지금 진출한 지 25년 됐는데 90년대 중반에 진출을 해서 내수 누계만 1000만 대의 생산을 했고 인도 자동차 기업 중에 수출 1위입니다. 이게 굉장한 거죠. 기아도 뭐 생산공장 설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미 내수 생산 50만 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잘 모르겠지만 인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무역 장벽이라든지 비관세장벽 이런 것들, 또 국내 규제 애로 사항 때문에 사실 경제교류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다고도 평가되고 더 중요하게 제가 꼽는 것은 이 두 나라가 역사적인 이유라든지 지리적인 이유라든지 해서 서로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 자체가 별로 없었기 교류 자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면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 시장, 투자 및 생산기지로서의 인도 역할이라고 한다면 현재의 인도의 정책적인 기초를 보면 자국에서 생산한 것을 우선시해요. 그러니까 사실 수입 시장에 대한 개방에 대해서는 꽤 소극적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현재 인도 정책 기초 하에서 수출 중심으로 인도 진출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최근의 국제동향을 보면 예를 들면 미국이나 유럽의 협력사들이 한국 기업에 부품을 납품한 기업들에게 '너희들 인도, 우리랑 같이 따라와서 생산 좀 해봐라든지 아니면 기업이 자체적으로 인도에 대한 시장 관심이 갑자기 높아진다든지 이런 전형적인 양상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인도에 대한 관심은 좀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투자의 경우는 사실 인도 진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경로가 될 것 같은데 특히 투자의 경우는 인도의 정책 기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가장 합리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인도가 지금 반도체 포함한 전자라든지 자동차·재생에너지·의류기기·식품 가공·배터리 그리고 전자상거래까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거나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랑 대부분 일치해 해요. 그래서 인도 진출의 전망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인도가 생산기지로서의 잠재력도 크겠지만, 최근에 또 우리 투자 사례도 있긴 한데, 인도의 어떤 산업정책 전략에 따른 어떤 진출 기회를 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일반적으로 인도가 평균적인 수준의 높은 좋은 그런 산업 여건 또 인력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보이는 부문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이런 점에서는 기업에만 맡겨두는 그런 진출보다는 우리 정부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허윤

예, 감사합니다. 김정곤 박사님께서 아주 질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짚어 주셨습니다. 인도라는 나라가 아직은 중국을 대체하기 보다는 중국에 이어서 중요한 시장이고 또 중국에 이어서 중요한 생산기지로 올라서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여러 가지 지금의 지경학적 또 지정학적 국제 상황에서 인도의 전략적 가치가 상당히 급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없다면 인도가 과연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반도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투자나 협력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인도는 여전히 좀 가까이하기에 먼 당신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인도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다가도 몇몇 주요 기업들 빼고는 대부분 인도의 진출이 그렇게 빠르게 또는 우리가 기대하듯이 증가하거나 상승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관심과 이해 부족이구요. 특히 인도가 굉장히 관세가 높습니다. 자동차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비관세장벽들 TBT, 그러니까 기술장벽들도 높고요. 그리고 투자를 하고 나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곤 박사님 말씀대로 이런 영역에는 우리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인도의 산업정책 변화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중동 문제 전문가이신 김수완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하고 최근에 TIPF, '무역 투자촉진프레임워크'죠. 그리고 CEPA,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입니다. 타결했습니다, 그렇죠. 내년 상반기에 아마 발효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또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를 '미래지향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서로의 관계를 격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생각도 들지만요. 중동과 한국의 그동안의 무역과 투자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일정한 흐름이나 패턴을 관찰할 수 있는지 우선 여쭙고 싶고요. 아울러 지금 전 세계 초미의 관심사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 전쟁으로 시작되는 지금 중동에서의 거대한 전운이 한국과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여쭙습니다.

### “김수완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인재학부 중동 이슬람 전략 모듈에서 강의하고 있는 김수완입니다. 오늘 일단 코라시아포럼에서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즘 이스라엘-하마스 문제로 굉장히 많이 중동에 관심과 이목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기존의 중동이라는 곳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경제적인 어떤 개체로서 경제적인 교역국, 투자국으로서 굉장히 많은 자리매김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커다란 프레임이 여기서 짧게 간단히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중동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석유라든지 원유라든지 석유제품에 대한 어떤 수입국으로서의 부동의 자리를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물론 대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렇고요, 아랍에미리트·카타르·쿠웨이트 그리고 오만이나 바레인 같은 어떤 GCC 권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동 수출에 있어서 주로 자동차나 가전, 전력용 기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출을 하는 그런 어떤 교역 형태를 보여왔는데요. 2012년에 저희가 대중동 수출에 있어서 최정점을 찍다가 그 이후로 유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많이 교역이, 볼륨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다가 1, 2년 전부터 다시 반등세를 보여서 서서히 중동 지역과의 교역 볼륨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의 대중동 수출을 보면 115억 달러로 그 이전에 비해서 한 12% 정도 증가한 상황이고요. 올해 상반기 7월까지 수출 규모를 보면 12% 정도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전체 수출 증가율이 상반기, 즉 1월부터 7월까지 13%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을 볼 때 중동지역의 교역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겠고요. 역시 중동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행위자라고 할 수 있다면 사우디아라비아겠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나라 교역 대상국에서는 최대 시장으로 알려지고 있고, 사실 그런데요 대중동 교역에 있어서 무려 사우디아라비아가 차지하는 그 퍼센티지는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가 되겠고요. 이스라엘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거에서부터 현재 그리고 향후 미래까지 우리가 중동과 교역을 함에 있어서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주목해 봐야 할 그런 권역은 바로 GCC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6개국 GCC 멤버 스테이트를 말씀 드렸는데 그중에서도 또 저희가 가장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또 투자를 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우리 허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아랍에미리트 한국 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건의 MOU, 그리고 약속받은 투자액이 무려 300억 달러입니다. 약 40조 원 규모죠.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 14일이죠. 10월 14일에 CEPA,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아랍에미리트와 더 많은 어떤 무역, 투자, 그리고 교역에 대한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로 그 국부펀드가 있어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 국부펀드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무바달라'라는 국부펀드가 있죠. 그 국부펀드하고 같이 또 이제 투자 유치나 협력 관계를, 해외 공동 투자를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 5월에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 무바달라를 비롯해서 7개 기관이 한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그리고 투자에 대한 어떤 실무 토론이 굉장히 심도 있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랍에미리트가 이번에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타결함으로써, 물론 수출 관세 철폐로 자동차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의약품·화장품·식품·식료품 그리고 뭐 농축산물 등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동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가 또 저희 K-콘텐츠가 중동지역에서 굉장히 어떤 핫한 그런 투자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 산업분야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저희와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확실한 투자 그리고 교역 여건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 CEPA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할 때 아랍에미리트산 어떤 원유에 대한 관세 철폐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자원 협력 또 바이어에 대한 경제 협력 등 향후에 굉장히 우리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간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아주 단단한 그런 어떤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우디도 역시 중요한 그런 대상국이죠. 사우디가 2017년에 이미 한국을 8대 중점 협력국으로 지정해 놓은 바 있습니다. 그럼과 마찬가지로 주요 협력 파트너로 저희를, 대한민국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해서 156억 달러 이상의 수출·수주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43년 만에 양국이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등 사우디와 한국 간의 어떤 끈끈한 외교관계뿐만 아니라 경제 협력 관계에 대한 어떤 아주 단단한 토대를 마련했다, 그리고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미래 기술에 대한 협력도 지속해서 심화하고 발전해 나가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들이 작년 11월에 사우디의 실세라고 할 수 있죠 차기의 왕이 될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오시티에 대한 우리나라 전 국민의 또 기업체뿐 아니라 많은 관심이 이목이 집중되어 왔는데요. 이 네오시티를 필두로 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 다른 아랍에미리트도 그렇지만, 탈석유 의존형 경제구조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오시티뿐만 아니라 사우디 비전 2030이라는 어떤 그 사우디의 어떤 경제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리자, 뒤집어버리자, 사회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는 좀 제외된 것 같지만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이 사우디를 완전히 탈바꿈해 보자는 그런 MBS, 즉 무함마드 빈 살만 젊은 왕세자의 개혁의 의지로 사우디가 나날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뀌는 변화도 주목해 주시면 괜찮겠고요. 네오시티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외에 키디아 프로젝트라든지 킹 압둘라 파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메가 프로젝트를 계속 연이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집중을 하게 되겠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좋은 여건과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유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과 중동, 특히 산유국과의 어떤 무역이나 투자 패턴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유가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우디 비전 2030을 통해서 경제 다각화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결국 Post oil era, 즉 석유가 고갈된 이후에 그런 시대를 대비하자는 노력이기 때문에 결국은 석유 의존형 경제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리자는 그런 의도인데 아직은 유가로 인해서 경제의 수입에, 사우디의 재정수입의 약 70%가 유가로 인한 그런 수익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일례로 그동안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도 마찬가지로 건설 분야에 있어서 그런 기약이 있었는데 그 팬데믹 이후에 유가가 굉장히 하락함으로써 이 투자 패턴이 굉장히 두 프로젝트가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중동 교역이나 투자에 있어서는 유가를 상당하게, 유가의 변동을 민감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두 번째로 중동에 있어서 교역이나 투자를 하실 때 유념해야 될 부분은 결국은 산유국에서, 주로 GCC 국가는 절대왕정이거나 입헌 군주제입니다. 즉 왕이 이 모든 결정을 하거나 왕실에 있어서 왕족에 있어서 결정, Decision making을 하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결국 투자를 유치하는 주체나 아니면 합작투자를 참여하는 주체, 그리고 또 무역을 하는 주체가 결국은 재정을 담당하는 공공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대표적으로 'PIF'라는 국부펀드가 있고 '아람코' 있죠, 그래서 해당 재정을 결정하는 것이 결국 유가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유가의 어떤 추이를 잘 살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시장이 굉장히 여전히 미래에 매력적인 이유는요, 중동은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 대한민국은 작년에 합계출산율이 0.7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중동지역은 2.7에서 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인구가 증가하는 굉장히 좋은 마켓이다,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동이 또 K-콘텐츠 즉 K-컬처, 한류시장이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K-콘텐츠를 수출하기에 굉장히 적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제 탈탄소 실현을 위해서 사우디 네오시티 또 기가 프로젝트 본격화하고 있고 또 COP27 개최국인 아랍에미리트를 필두로 해서 수소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원자력 이런 에너지믹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또 이 GCC 국가를 비롯해서 중동 정부나 산업에 있어서 디지털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안보를 위해서 스마트 팜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아마 다음 세션에 K-방산에 대해서 세션이 준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중동 무기 수출액이 다섯 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K-9 자주포라든지, 천궁 2라든지, 천무라든지 이런 저희가 개발한, 대한민국 자체 개발한 무기들이 중동 시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참 한편으로는 아이러니인데요. 중동시장에 이스라엘-하마스라든지 아님 팔레스타인 혹은 다른 이런 중동시장의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즉 안보의 불안이 발생할 때마다 대한민국의 대중동 무기 수출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이스라엘-하마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로 인한 대한민국 혹은 글로벌 경제에 대한 영향을 간단하게 먼저 답변부터 드리자면 이러한 사태가 중동 아랍 국가들이 개입을 하거나 이란이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미국이 개입하거나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글로벌 경제나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이 바로 저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산유국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대이스라엘 수출 규모가 21억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와 그 무역 규모에서 차지하는 볼륨이 굉장히 포션이 작을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란이 개입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미국까지 개입하는 어떤 확전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또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는 유가가 그렇게 사실 이 하마스 사태 이후로 유가가 최대 7%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다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 “허윤

네, 김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에 중동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짚어주셨습니다. 특히 중동과 우리와의 관계를 볼 때 유가의 추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 사실 김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제2의 중동 붐에 대한 기대도 생깁니다. 과거에 우리 첫 중동 붐이 건설을 중심으로 일어났다고 하면 지금은 건설 플러스 우리가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방산, 그리고 말씀드린 K-콘텐츠, 디지털 온라인 상품들까지 상당히 다양한 그런 상품과 또 서비스를 중심으로 우리와 중동이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동을 볼 때 GCC 중심으로 살펴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어떤 에너지의 거대한 수입원이자 또 한편으로는 수출 시장 또 투자 시장으로서의 역할 한번 저희가 적극 추진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왕정 국가들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왕정국가는 탐다운 방식으로 경제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정부와 정부 간에 상당히 바인딩 한, 어떤 그런 프레임이랄까요, 이런 협력의 틀이 완성이 되어야 민간기업들의 진출이나 또 여러 가지 거래와 협력들이 용이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부가 중동 시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는 점들은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교수님 발표에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서 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하고 아세안, 서 대사님은 아세안 대사로도 계시기 때문에, 또 멕시코 대사로도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하고 아세안의 어떤 경제거래 협력 규모와 성과 면에서 우리 주력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을 어떻게 보실 수 있는지, 또 그동안 관찰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아세안과 한국이 함께 꿈꿀 수 있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대답 부탁드립니다.

### “서정인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뭐 경제전문가는 아니고요. 아세안을 한 25년 오래 하다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틀은 그런 이야기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하고 아세안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경제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모든 통계를 보시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아세안 시장은 우리에게 아주 효자 시장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 놓지 말라는 투자가의 오랜 격언이 있습니다. 아세안하고의 협력은 외교 다변화, 경제 다변화 그런 의미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세안은 한국의 2위 교역 대상국입니다. 그제 중국 다음인데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최대 교역 규모를 보면 한 2000억 불이 이제 넘어섰고요. 그리고 2위 건설시장이기도 하고 3위 투자대상국, 그래서 2022년도의 흑자 규모가 430억 불이나 돼서 아주 단연 1등입니다. 그러면 이게 관계가 우리에게만 중요하냐 그런 게 아니라 아세안한테도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세안한테 5위 교역국이자 유망 투자국입니다. 그리고 방문객으로 치면 저희들이 한 1000만 명이 아세안을 방문을 하니깐 아세안에게도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국가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주력산업 이야기하셨는데 전기전자-석유화학-디스플레이 산업이 아주 선전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인도네시아를 두 번 근무했는데, 90년도 말하고 그리고 2000년도 중반에 대사로 근무를 했는데, 아주 달라진 것은 대형 물에 가면 과거에 제가 30년 전에 갔을 때는 소니나 이런 기업들이 매장 바깥에 나와 있는데 이제는 단연 엘지나 삼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선전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한 18000개 정도 나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교역은 잘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관찰하면서 뭐가 좀 정책적으로 조금 더 개선했으면 좋았을까, 아니면 어떤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하고 아세안이 교역의 비중이 사실은 아시아 내에서 보면 별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순위로 해야 한 5위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아세안 내의 교역에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과 아세안 교역구조가 자본재, 즉 설비하고 중간재·부품·원자재 중심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아세안 수출품 보면 중간재가 한 85%, 그리고 자본재가 9.5% 소비재가 4.8%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소비재 분야에서 조금 확대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좀 엿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중간재 수출 이게 우리 대기업들 간의, 어떤 내에서의 교역이기 때문에 그게 뭐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측면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대아세안 교역이 주로 자본재 및 중간재 중심의 재화 중심이니까 요새는 모든 제품들이 다 서비스화가 트렌드가 되어 있는데 조금 아세안이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서비스 붐 뭐 이런 것들 그런 기회를 좀 활용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 번 해 봤습니다. 특히 아세안은 현재 한 50여 년 통합을 하고 있지만 아날로그 시대 경제에서 3분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말레이시아처럼 1그룹이 있고 태국처럼, 2그룹의 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 정도 있고, 3그룹이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가 있는데 디지털 시대를 진입하고 있는 지금도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무슨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봅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대아세안 교역투자가 베트남이 한 40~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중국은 아니겠습니까만은 뭔가 이걸 갖다가 플러스적으로 베트남 플러스 알파, 이렇게 동남아에 혹시 뭐 국가가 없는 건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올해가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이고 그래서 인도네시아나 아니면 좀 더 광범위하게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

그리고 이제 한국과 아세안이 그러가는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교역이 한 2000억 불인데 한 3000억 불도 이제 노력하면 지금의 중국 정도 교역의 비율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 그래서 아세안이 미래가 밝다, 이런 것은 몇가지로 말씀드리는 첫 번째가 향후 2, 30년 동안 인구 보너스 효과가 있을 거고 두 번째가 빠른 도시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디지털 경제의 규모가 2030년 1조 불에서 2조 불까지 된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잘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조금 아세안이라는 지역 기구 전체를 보는 '판아시아 전략' 이런 것들을 좀 하고 결국은 미국이나 EU 기업들도 다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한 10% 내외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역시 아세안이 다양하니까 개별 국가적인, 양자적인 그것도 계속해나가되, 그 중간에 메콩 국가나 해양 국가들을 대상으로 소지역 협력 뭐 이런 것들을 좀 입체적으로 가면, 우리가 전체를 아세안을 대할 때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그 뒤의 균락을 보는 이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정부, 기업 그리고 우리 관·학계 이런 데서 총체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 “허 운

예, 감사합니다 서 대사님. 지난 20년 이상 외교관으로서 활동하시면서, 아세안을 지켜보시면서 경험과 관찰에서 우리나라는 통찰력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저는 정책적 함의 몇 가지 해 주신 게 참 인상 깊은데요. 사실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가 말씀하신 대로 아세안에서 지금 거의 핵심적인 그런 영역을 차지하고 전체 교역에서도 한 40%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베트남이라는 나라, 굉장히 특이한 나라입니다. 농업 위주로 있다가 지금 바로 서비스산업 위주의 경제로 바뀌었고, 베트남 자체는 기술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베트남 시총 1위 기업이 빈그룹인데요. 빈그룹, 부동산 개발하던 회사입니다. 최근에 빈파스트라는 자동차 회사를 만들었죠. 하지만 엔진은 전량 BMW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도 마산이라는 기업입니다. 마산은 우리 롯데하고 조금 비슷한데요. 유통, 음료수, 백화점 뭐 이렇게 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세안 쪽은 자체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들어가면 생산 설비·부품·소재 전부 한국에서 수입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재가 이제 85% 이상을 차지하고 또 설비도 10% 차지하는 이런 구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함께 베트남 기업들, 중소기업들의 기술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동남아 국가들로서는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경제규모에 비해서 여전히 교역규모는 작다, 이걸 GDP 가지고 계산해 보면 충분히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지역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디지털라이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재화의 어떤 서비스와 그를 결합한 그런 어떤 하이브리드형의 제품·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 분 토론자분께 각각의 질문을 드렸고 공통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통 질문에 대해서는 순서 상관없이 준비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물론 시작은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시작된 거지만요, 중국에 대해서 다차적 압박을 굉장히 촘촘하게 지금 깔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주요 공급망, 핵심 산업 그리고 미래 기술에 대해서 중국을 배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정한 기간은 디리스팅 정도, 전략적인 디커플링을 통해 가지고 가지만 단계적으로는 이런 핵심 산업에 있어서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꺾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 산업·공급망, 미래 기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미국의 전략적인 디커플링이 우리 주력산업에는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지 한 번 전망해 주시고요. 또 미·중 갈등 하에서 아세안이나 인도나 중동이나 과거와는 다른 지정학적, 지경학적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최근에 급변하는 국제 경제 환경, 통상 환경에서 이 지역이 가지는 지정학적인 의미 변화와 연계해서 우리 주요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좀 길었습니다. 준비되시는 대로.

### “서정인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전문가들이니까 제가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 소스도 보고 하는데 이제 질문이 딱 와닿는 게, 10월 18일 날 IMF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보고서를 한 번 봤습니다. 한국일보를 비롯해서 많은 신문에서 인용을 했는데, 예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미·중 디리스팅, 요샌 프렌드쇼어링 이렇게 분절할 시에는 중국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한국의 GDP가 한 4% 정도 떨어질 것이다, OECD가 1.5%, 1.8% 중국이 6.8%. 이렇게 하면 그 정도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리쇼어링할 경우에는 한국의 GDP가 한 10.2%나 감소할 것이다 이런 보고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우리 기업한테 미치는 영향은 분명해 보인다. 디테일하게 그리면 반도체·전기전자 산업 이런 게 얼마나 영향이 있을 것인지 그건 우리 연구소에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미·중과의 어떤 지형학적 전략 차원에서의 연계성과 관련해서는 미·중의 디커플링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는데 얼마나 같지 사실 이걸 아무도 모르는데 장기간으로 간다 이렇게 하는데 최소한 2, 30년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미·중 갈등, 디커플링에서 다들 영향을 받겠지만 그래도 동남아, 아세안이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런 것 같습니다. 특히 2023년도에 올해 얼마 전에 발표한 이선진 대사의 '중국과 공존하는 아세안의 지혜' 이런 책에 따르면, 아세안이 특히 말레이시아 하고 싱가포르의 2021년도와 2022년도 두 해 사이에 세계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투자가 10개 나라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두 나라가 포함됐을 정도로 그렇게 영향이 있다. 다만 아세안으로서는 지금 중국 중심으로 그동안 2, 30년 동안의 동반 성장을 했는데 과연 중국 중심의 성장이 가능할지 이런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파트너를 찾고 있다. 그래서 그 파트너가 우리가 돼서 같이 한국과 아세안이 분업구조로 가면 뭔가 우리가 새로운 신성장동력 그리고 한 아세안 협력의 질적인 도약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허 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정곤 박사님.

“**김정곤**

서정인 대사님도 아세안 국가들이 이 미·중 갈등에서 어떤 이익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했는데 인도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그런. 미·중 갈등 이후에 굉장히 좀 많은 변화,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외교 안보 전문가가 아니지만, 전문가들 말씀이나 이런 논문들을 읽어서 이해한 바로는 지금 아시아 내에서 중국이 어떤 권력이나 영향력을 독점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미국·일본·인도가 이해관계가 동일한 상황입니다. 물론 인도는 궁극적인 세계 체제에 대한 지향점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미국은 어쨌든 전략적으로 인도를 반드시 자기 친구로 만들겠다는 게 이 중·장기적인 외교 전략인 것으로 잉태 전략이 나올 무렵에 그런 외교 문서들과 공개된 바 있고요. 그에 따라서 미국이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미국의 생각은 인도가 아시아에서 중국에 대해서 상대해서 버텨줄 수 있을 정도로 군사력이라든지 외교적인 측면이라든지 경제력 그리고 전반적인 그런 국가적인 역량이 갖추어지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에 더불어서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호주, 그리고 유럽 국가들도 그런 측면에서 어떤 인도에 대한 전략적인 협력을 많이 강화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도 역시 지금 국내적으로 정치나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성장세도 좋고 이런 상황이 아주 절묘하게 맞물려가지고 인도가 지금은 굉장히 그 외교 안보적으로 보면 전략적인 레버리지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인도도 이참에 진짜 G3, 진짜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패권 국가 중에 하나로 올라서고 싶은 그런 의지도 뚜렷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인도가 이제 1인당 소득은 막 2천 불 넘었고 뭐 정말 못 사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 나라의 덩치나 그동안에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봤을 때는 단순히 개도국 하나로만 간주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치도 않고 인도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인도가 국제사회에서 자리매김을 새롭게 하고 있고 또 미·중 갈등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런 인도의 어떤 영향력 강화나 위상 강화와 같은 것들이 좀 많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여건에서 결국에는 과거와는 굉장히 다른 경제협력의 양상이 벌어지는데, 만약에 10년 전쯤, 10년도 아니죠 한 7, 8년 전으로 올라가면 과연 인도에 대한 그런 반도체 투자나 기술협력이 이렇게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이제 명백히 중국의 의식한 그런 미국이나 그런 주요국 일본 같은 나라들의 움직임이고 당장 인도 역시 당장 반도체 디자인이나 이런 기술은 갖고 있지만 생산 역량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황에서, 이 기회를 어떻게든 활용해서 반도체 생산국가로 올라서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예를 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반도체 이런 생각을 갑자기 인도에 대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분야로 가면 이게 이 지형학적인, 지형학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게 좀 뚜렷한데 인도는 사실 중국에 대해서 무역 의존도가 엄청 높고, 허 윤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인 제품이나 소비재라든지 보통 쓰이는 중간재 이런 것들은 중국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인도의 반중 정서는 지금 굉장히 높지만 인도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반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굉장히 조심합니다. 중국이 자기네들보다 매우 강하고 또 중국에 의존할 것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섹터별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쪽으로 가면 그 사이버 안보랄까 이것은 경제 차원을 넘어서 안보 차원의 관심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작용을 해서 사실 IT기업의 투자라든지 심지어 뭐 소셜, SNS 앱 이런 것도 막아버리죠.

그리고 통신기기도 중국산 쓰지 않고, 심지어 국내 업체도 게임업체도 굉장히 인도에서 잘하는 업체인데 중국 지분 문제를 들어서 서비스를 여러 달 중단 당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비롯해서 첨단산업 특정 분야 같은 경우는 전기차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중국의 굉장히 메이저 전기차 업체가 인도에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인도 정부에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불승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야별로 보면 인도가 중국하고 명백히 선을 긋고 있는 분야들이 있고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중국의 대인도 투자가 2019년 이후로 급감을 해서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전에 없이 우리 기업들한테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측면도 있다 그런 예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인도는 거의 우리가 개발 연대했던 거랑 흡사한데 기간산업, 중화학공업 이런 기간산업 쪽에 자국 산업기반을 육성하는 의지가 엄청 강한데, 공교롭게도 오전 세션에서도 그 말씀이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기간 제조업 쪽에선 거의 경쟁력을 다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도 입장에서나 전략적인 협력 파트너로서의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있지 않나. 그것을 찾아내는 것은 기업이나 정부의 몫이겠지만 지금의 지경학적 여건 하에서 그런 가능성이 많이 나타나고 관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허윤

네, 감사합니다. 김정곤 박사님께서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도의 대중국 견제 의도, 또 대중국 견제 강도에 따라서 우리한테는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고 또 열릴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또 서 대사님께서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상당히 장기간 갈 수 있다.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990년대 초반의 소비에트와 동구권이 몰락하면서 사실 미국 중심 단극 체제에서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죠. '초세계화'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초세계화가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사실은 축적하고 있었고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 발 금융위기가 나면서 세계화는 주춤하기 시작했고 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탈세계화로 가는 그런 어떤 큰 흐름의 변화를 보였다. 근데 그 이면에는 사실은 정치 공학이 숨어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더 이상의 세계화를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 있어서 많은 유권자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선호하게 되었고 또 내셔널리스트한 그런 자국 중심의 정치인들을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정치적으로 풀리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국민들이 재세계화를 원하지 않으면 상당 기간 동안은 정당에 관계없이 경제적인 내셔널리즘, 정치적인 내셔널리즘 모두 다 강화될 것이다. 경제적 내셔널리즘의 요체는 보호무역주의하고 반이민 정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장기간 갈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 중요성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제 김 교수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 “김수완

네, 결국은 그러니까 미국이 4차 혁명 시대에 중국이 그 주도권을 잡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글로벌 밸류체인, 즉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 전략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중에서 핵심 산업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5G 네트워크죠. 화웨이 같은 그런 중국 회사하고 거래 중단하는 것도 그렇고, CNP라고 해서 클린 네트워크 프로그램 결국은 이제 Like-Minded Nations,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하는 나라들하고 협력을 통해서 중국의 통신장비나 인터넷 기업을 배제하겠다. 결국 이 첨단 산업에 대해서 중국기업의 해외 진출이라든지 자금조달을 차단하겠다 이런 것이 디커플링의 요체인 것 같은데요. 결국 우리나라는 첨단 기술에 대한 어떤 경쟁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경쟁에 노출이 될 것이다, 위기에 노출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수출 측면에서 보면 미·중 갈등의 핵심 품목인 IT, 반도체 제품이 있겠죠. 그리고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한국과 교역에 있어서 핵심 품목에 대한 어떤 교역의 분절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직접적인 영향에 노출되어 있어서 굉장히 조금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수입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원자재나 중간재를 아무래도 특정 국가 부분으로 상당 부분 수입하고 있어서 여러 분야에 있어서 분절화가 굉장히 심화될 것 같다, 이게 생산 차질 및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나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같은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높은 그런 산업의 경우에 미국 시장에 있어서 진출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미국의 디커플링 전략으로 인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의 경우에 이제 애플이나 퀄컴 같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으면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 업체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상당 부분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약간의 희망적인 부분을 발견할 수 있겠고요.

저희가 중동 입장에서 한 번 중동지역을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미국의 디커플링 전략이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으나 지금 말씀하신 아세안이나 아니면 인도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혜택을 보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중동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중동의 어떤 지정학적인 현 상황을 살펴보자면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GCC 국가들은 친미국가였습니다. 즉 적극적으로 미국이 중동의 안보를 이런 아랍 국가들의 안보를, 산유국들의 안보를 책임져 주고 대신에 이 산유국들은 미국에 있어서 석유를 공급해 주는 그리고 달러 페그 같은 이런 경제적인 협력을 함으로써 서로 간에 윈윈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요.

그렇지만 최근에 변화가 발견되고 있는 것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의 관계입니다. 그동안 냉방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미국 관계가 많은 변화를 최근에 겪고 있다는 것이죠. 사우디아라비아가 더 이상 미국을 믿을 수 없다, 미국을 의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고 접근한 것이 러시아 아니면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의 주도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전에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굉장히 좀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원수지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굉장히 갈등이 많은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둘의 관계를 정상화한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미국이 아니고 중국입니다. 이런 것을 살펴볼 때 이런 것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기 요인으로, 불안 요인으로 또 이것이 대두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우디가 지금 현재 미국을 상대로 밀당을 하고 있다. 즉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면서 그것이 또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이 브릭스(BRICS) 가입입니다.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이란-아랍에미리트-이집트, 그리고 아르헨티나-에티오피아도 있지만, 6개국이 5개 기초,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브릭스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함의하고 있냐면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이 미국의 경쟁 상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과 물론 이집트는 경제 볼륨이 그렇게 크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랍에미리트 같은 아랍 국가를 같이 한 배에 타게 함으로써 미국을 견제하겠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란도 마찬가지로 미국을 아무래도 경쟁 상대라기보다는 견제하는 의미에서 중국과 손을 잡겠다. 우리는 이런 의미를 굉장히 노골적으로 오피셜리(officially) 드러낸 그런 상황이다,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최근 여기에 더불어 관계 개선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2020년에 사실 아랍과 이스라엘 또한 이란과 관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갈등이 더 심한 그런 국가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중에 2020년에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협정을 맺어서 아랍에미리트-수단-모로코-바레인 4개국이 이스라엘과 전격적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동지역에서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커다란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됐다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최근에는 미국의 주도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까지 외교 정상화를 위한 그런 빠른 움직임이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마스가 이 시점에서 공격한 원인 중의 하나도 되겠지만, 이러한 상황이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미국과 중국의 어떤 이런 묘한 경쟁관계, 갈등관계가 우리 입장 대중동 무역을 하거나 교역을 하는데 굉장히 지혜롭게 접근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긍정적인 상황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구요.

더군다나 미국의 대중동 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대외교 정책입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즉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발표하는 대외정책 중심에 대중동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중동에서 발을 빼자는 그런 오프쇼어 밸런스라는 전략이 서서히 있으면서 트럼프 행정부 땀 더 심해졌고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하면서 더 중동 문제에서는 발을 빼자는 이런 현상에 있어서 중동의 그런 미국의 공백을 누가 메꿀 것이냐. 그것이 바로 중국이 그 영향력을 메꾼다는 상황이 되어 왔고요. 이전부터 중동에 있어서 중국은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지원,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지만 아프리카 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서 이 중동에, 즉 미국의 영향력이 조금 약화된 이 상황에 중국의 영향력을 정치적이거나 외교적으로 더 많이 극대화하자는 전략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벌어졌을 때 중국이 공식적으로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는 그런 입장 표명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중동에서의 어떤 묘한 갈등과 이런 관계가 결국은 우리나라의 대중동 무역이나 교역에 있어서 지혜롭게 접근한다면 오히려 이런 위기가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 “허윤

예, 세 분 전문가 여러분 좋은 토론에 감사드립니다. 환경의 급격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플러스-마이너스 요인을 동반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상당히 자유 무역이라는 다자적인 질서, WTO가 주도하는 질서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국부를 이루는 이런 방식을 택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무역이라는 이 다자질서가 무너지고 이제 각자도생의 보호주의적인 세상이 왔습니다. 각국이 다 자기 나라 산업을 위해서 산업정책을 부활하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한편으로는 수출로 먹고살고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이런 측면이 있지만, 또 한 편으로는 미-중 간에 이런 패권 경쟁은 중국의 기술 굴기, 또 우리와 중국의 많은 분야에 있어서 기술격차를 조금 더 확장시키는,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많은 나라들이 보호무역주의, 자국우선주의를 하다 보니까 심지어 우리나라의 앞으로 팔 물건들은 전부 우리나라에서 생산 하라는 극단적인 주문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자체가 내수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은 우리로서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대부분 국내가 아닌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 보면 국내 산업 공동화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데 대한 정부의 고민이 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중요한 주제의 좋은 토론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고민과 토론을 통해서 우리 주력산업의 생존 전략, 또 나아가서 성공 전략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공 전략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 주력산업의 생존전략

## 세계가 주목하는 K-방산

강은호  
前 방위사업청장



아아, 먼저 준비된 동영상 두 편 보시고 제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K-방산'이라는 이름 하에 저를 초청해 주신 한국일보사 측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신 첫 번째 동영상은 '전술 지대지 미사일'이고요. 두 번째는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미사일' 인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깐 두 번째는 제가 소리, 음성 부분을 제가 빠뜨리고 녹화를 해와서 제대로 효과가 덜 나온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원 길이가 1m짜리인데 한 200km 날아가서 10cm짜리 꺾대 한가운데를 뚫었고요. 두 번째 동영상은 400km 이상을 날아가서, 태평양 한가운데를 가로질러서 3, 4m짜리 표적을 그대로 직격한 동영상입니다.

제가 방산 분야만 만 24년 일을 해 왔는데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방위산업',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두 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방산' 그러면, '비리' 그랬습니다. '방산비리'란 말은 거의 일반명사화되다시피 했었는데, 근데 2, 3년 지나서 지금은 'K-방산'이라고 얘기합니다. K-팝, K-푸드, K-컬처 이런 것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어떤 한 분야처럼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방산비리라고 불렀던 분야가 어떻게 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한 분야처럼 인정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이런 추세를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나마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가장 핵심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의 한 분야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합니다. 국가 분야 중에서 '부국'과 '강병'을 동시에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분야는, 제가 볼 때는, 방산 분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경제 부처에 해당하는 산업부나 기재부, 여기는 부국을 중점적으로 하지요. 그다음에 나라를 지키는 일을 직접적으로 하는 국방부는 강병을 직접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해서 국과연(국방과학연구소)과 방산업체가 하는 방산 분야는 두 영역을 동시에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분야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 방산의 특징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첨단과학기술의 산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의 무기체계는 그 시대에 출현한 최첨단 기술의 집합체입니다. 각 나라는 자기들이 구현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을 최대한 반영해서 무기체계로 만들고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방위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두 개로 나뉘집니다. 방위라고 하는 '안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는 시각하고 산업이라고 하는 '먹거리 또는 일자리' 이렇게 접근하는 시각이 부딪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이 두 개가 결합된 분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결합되느냐, 민간이면 할 수 없지만 향후, 15년 내지 20년 후에 국가 공동체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술을 전략적으로 정부가 돈을 투입해서, 국방 R&D를 통해서 그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 개발된 기술을 무기체계로 구현해서 나라를 지키고 그 기술을 일반 민수화해서 민수시장도 이끌어가고. 필요한 경우는 방산 수출을 통해서도 국제 방산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 즉 부국과 강병을 동시에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기능적으로 보지 말고 이 역할을 바라볼 때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과학기술을 즉 미래에 국가 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적인 기술을, 민이 하지 못하는 분야를 특별히 선정해서 정말 어려운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 기술로 나라를 지킨다는 뜻이고 또 그 기술로 민수시장에도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첨단 기술의 산실'이고 그것이 첨단 기술, 국가 과학기술 혁신의 통로로서 역할을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분야를 그렇게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가 미국이고,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고 계시는 민수화된 물건들의 대부분이 국방과학기술 연구하는 도중에 개발되었거나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개발된 기술들입니다. 인터넷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 거의 매일 아침에 쓰시는 전자레인지도,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GPS, 핸드폰이건 시계 건 거의 모든 기구에 들어가는 GPS도 군사과학 기술의 하나로 개발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향후에 많은 사람들이 안보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방산을 바라보는 분들은 혹시 안보 관련해서 구멍이 뚫리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방산 분야를 엄청나게 많이 비판하고 비난을 합니다. 또 산업적으로만 바라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방산 수출에 열광을 하지만 만약에 방산 수출액이 떨어진다면 또다시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과학기술 혁신의 통로로서 방산 분야가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안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메워나가면 되는 것이고 방산 수출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기술혁신을 이끄는 통로라고 한다면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이다 이 말씀드리고 싶어 이렇게 개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 전체 발전과정을 전 네 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방산을 육성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8월 경에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면서부터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3년에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법도 만들고,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도 도입을 하면서 방산을 육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술 개발의 중심은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ADD(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가 중심이 되어서 정부가 모든 것을 이끌어왔습니다. 그 끌어가는 과정에서 한 1983년쯤에 전문화·계열화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방산업체가 집중적으로 자기 분야를 특정해서 기술 개발할 수 있고 역량을 키우는 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990년대, 2000년대에 이르러서 방산기업이 급성장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의 두 단계는, 기본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보면 '유치산업보호론'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아이가 커서 스스로 뛸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고 지원하고 돌봐주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 정책에 의존했다가 그 과정에서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기업들의 성장이 있던 다음에 2006년, 방위사업청을 만듭니다. 그리고 방위사업청을 만든 다음에 전문화·계열화 제도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도입한 것이 방산 분야에도 경쟁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즉 기업 간에 스스로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방산업, 방위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그때는 조금은 준비가 덜 돼서 여러 가지 많은 논란도 있었고 또 혼란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더욱더 우리 방산 업체의 역량이 커져 갑니다.

그 결과 어떤 상황이 발생했나면 21년도에는 최초로 방산 수출이 국내 방산 수입을 초과하는 첫해가 됩니다. 제가 방위사업청 청장으로 작년 6월 말까지 재직을 했었는데, 방위사업청의 방산 예산이 1년에 한 17조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순수하게 외국에서 도입하는 예산이 약 5조 원 정도 됩니다. 21년도에 방산 수출액이 72.5억 불이니까 8.5조, 9조 가까이 됩니다. 방산 수출액이 방산 수입액을 확실하게 초과합니다. 그런데 저 22년도를 다시 구분하는 이유는 22년도에는, 물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방산 자체를 전략 산업으로 지정한 해이기도 하지만, 21년도 초기부터도 전체 방산 역량이 결집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21년도에 나타난 효과를 보고, 방산기업이나 R&D를 하는 모든 사람들도 정말 우리는 해볼 수 있다는 분위기가 나타나고요. 22년도에 신정부 들어서면서 진정한 의미의 어떤 전략산업처럼 지정을 하고 그걸 씁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방산 수출액이 약 20조 원에 해당합니다. 제가 저렇게 20조 원 해당하는 해를 정말로 의미 있다고 보는 이유는, 제가 17조 원 정도 드는 예산 중에서 해외에서 도입하는 예산 약 5조 원, 그다음에 순수하게 R&D나 운영을 위한 돈 한 2조 원, 약 10조 원 정도가 우리 국내 방산업체에 투입이 됩니다. 국내 방산업체에 투입된 돈의 약 두 배를 해외에서 수주를 한 겁니다. 방산 수출, 즉 해외 매출액이 국내 매출의 두 배를 달성한 겁니다. 그러면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국방 분야가 '소비 분야'에서 '생산 분야'로 전환되었다 저는 그렇게 선언합니다.

국방 분야가 대부분의 나라, 아니 그 존재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소비 분야입니다. 나라를 지키면 그 목적은 일차적으로 다 달성한 겁니다. 적절한 범위 내에서 과학기술 혁신의 통로로 역할 하면 그걸로도 무지하게 박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외에서 더 많은 소득을 얻는다 그것은 완전히 생산 분야로 전환한 겁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경제학적으로도 국방 분야는 전체 사이클에서 '외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깨버린 것이 한국입니다. 세계에서 국방 분야가 생산 분야로 전환된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못합니다. 미국은 투입하는 비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22년을 상당히 중요한 시기로 보고 저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1970년부터 22년 넘어서 지금까지, 정부 정책 자체의 그 흐름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서 이걸 보여드렸습니다. 한 번도 변함이 없이 끊임없이 유지되어왔고 방위산업은 성장하고 육성되어 왔습니다. 비리라는 말을 듣던 그 시기에도 현장을 지켜온 R&D 연구자와 그 방위산업 물자를 생산한 업체의, 현장의 관계자들이 피땀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이룩해 온 성과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위산업의 미래를 많이 얘기합니다. 이 정부 들어서도 4대 강국 안에 들어가겠다고 국정과제 목표로도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실현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의문을 제기하더라고요. 방산 수출액 뭐 20조 원 정도, 또 넘어서 저는 올해 200억 불 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시 안 넘더라도 내년 한 300억 불 넘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는데. 200억 불, 300억 불이 5000억 불 수출한 국가에서 무슨 의미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한 번 보시죠. 국내 방산업체가 수출하는 기업은 15개에서 20개 미만입니다. 최대로 쳐도 30개 방산 업체가 300억 불을 수출한다, 우리나라 수출 기업 수를 제가 산업부 국장들한테 물어봤어요. 몇 개 정도 되냐, 한 30만 개 되냐? 그러니까 어우 너무 많은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적어도 3만 개는 넘지, 그러니까 3만 개는 넘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반 기업들 3만 개가 5000억 불, 30개가 300억 불. 30개가 3만 개가 되려면 1000배. 300억 불의 1000배는 30조 불. 일반 분야에 비해서 아주 엉터리 같은 통계 비교긴 하지만, 방산 분야의 수출 경쟁은 60배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나라의 기술력과 제조업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세계 3대, 4대 강국 안에 첨단 기술력과 제조업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것이 방산 분야 수출액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국제 방산시장에서 우리 방산이 강국으로 등장하게 된 힘은 뭔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술력입니다. 우리나라 방산 분야 기술력은 지금 한 세계 9위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1위는 당연히 다른 데가 도전할 수 없을 수준의 미국이고요. 2위 러시아, 3위 프랑스, 4위와 5위에 영국 또는 중국 들어가고. 6위 정도에 이스라엘 들어가고, 7위 일본 정도 들어가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9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미국을 제외하고 전혀 코드가 다르고 시장이 다른 러시아·중국을 제외하면, 여타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나라들은, 일본은 아직은 방산수출을 나서지 않습디만, 이런 나라들하고 우리하고 격차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큰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무기체계로 구현하는 제조업 능력이 절대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방산 분야도 제조업 능력이 세계 2, 3위 안에 들어갑니다. 제조업 능력이 없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러시아와 중국의 무기체계의 흠결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잘 보셨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무기체계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아주 좋은 무기체계도 있습니다만, 재정 능력의 부실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눈에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구성이라는 측면, 정확도라는 측면. 우리는 기술력과 재정 능력이 결합되어 있는 최고의 강국에 속합니다. 즉 세계 3, 4위에는 무조건 들어갈 수 있다. 가성비로 나타납니다.

일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은 최고 전차, '레오파드 A7'이라는 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전차가 'K2' 전차입니다. 세계 3대 전차하면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를 얘기하고, 레오파드 A7 그다음에 K2 전차를 얘기하는데요.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는 해외에 수출하지 않습니다. 노르웨이에서 레오파드 A7 전차하고 K2 전차가 직접 성능 대결을 벌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노르웨이 시장을 정치적인 이유로 뺏겼습니다만, 성능에서 우리가 앞섰습니다. 그것은 문서상으로 노르웨이가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값은, 노르웨이 현장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독일 전차 2분의 1 이하입니다. 가성비 측면에서 성능은 약간 우수하데 값은 2분의 1 이하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그 밑에 있었던 자국 시장 규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군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기체계를 생산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에 의존하다 보니까 레오파드 A7을, 지금은 변하는 것 같은데, 그전까지는 약 2대 정도밖에 자국에서 운영하지 않았대요. 그럼 비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우리의 제품 경쟁력, 여기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산 분야 플레이어는 연구개발자와 그것을 생산하는 방산기업과 정부가 있습니다. 3자가 플레이어입니다. 일반 시장에서 정부라는 역할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방산 분야는 구매자가 우리나라 정부건, 해외 정부건,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부 역할 중에서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압축성향 모범국가나 중립 선택 때 하는 일반적인 대안하고 똑같습니다만, 이 방산 분야에서 정부 역할은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상대국, 해당국이 우리 정부 역할을 보고 신뢰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 무기체계는 적어도 20년에서 30년 사용합니다. 정부 정책의 신뢰성 관련해서는 '일관성'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정부 정책이 계속해서 변동한다면 우리 군도 우리 방산업체 무기체계를 쓰지 않습니다. 특히나 상대국은, 수출 상대국은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이 일관적이지 않다면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산 분야는 대한민국에 창설된 1970년 이후에, 방산 육성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예외 없이 일관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보수에서 진보로, 진보에서 보수로 전환되더라도 방산육성정책 효율성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는 윈윈하는 협상전략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윈윈하는 협상전략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현지화 생산입니다. 우리를 제외한 다른 선진국들은 이런 윈윈하는 협상전략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잘 활용 안 하는데 요새는 좀 많이 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 현지화 생산을 하게 되면 상대국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우리나라 무기체계를 도입한 후에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은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무기체계를 도입했을 때 정비 능력마저도 갖추지 못하게 하는 것이 실질적인 현재 다른 선진국들의 현상인데, 우리나라는 정비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고 거기에 생산 설비를 갖추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이 고용될 수 있는 길도 열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잃기만 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현지화 생산에서 거의 시설을 우리 무기체계에 맞게 설비를 하고, 또 그 능력을 갖추게 되면 무기체계 의존성이 우리한테 생깁니다. 20년, 30년 뒤에는 우리나라 무기체계를 쓸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변합니다. 양쪽에서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윈윈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나라 무기체계 의존성이 생기면서 현지화 생산을 하게 되면,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과잉투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 수출이 K2 전차 후에 폴란드에 1000여 대가 이뤄졌습니다. 국내에서 쓰는 것이 아직 300여 대 정도인데 1000여 대 수출이 발생했다, 그러면 수출하기 위해서 현대로템의 설비를 세 배, 네 배 증설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1000대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계속 1000대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과잉 설비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죠. 현지화 생산은 그걸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기 시에 해외에 우리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고속 군수전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지화 생산이 갖고 있는 큰 의미입니다. 대신에 현지화 생산하는 기술 이전의 수준은 70 내지 80% 이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절대 핵심 기술은 우리가 합니다. 이런 전략을 꾸린 것이 최근 방산 수출 급성장엔 큰 요소로 작용했다 이 말씀 드리고요. 여타 나라별 재미있는 일화도 있습니다만, 그건 혹시 다음 기회가 된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K-방산의 흐름을 위해서는, 제가 볼 때 이 세 가지 과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먼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북핵 미사일 위협의 신종 위협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산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하는 사람이나 무기를 생산한 사람들이나 이쪽 분야에서 일하는 정책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가 즉시 의문을 제기할 겁니다. '자국의 안보에 대해서도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나라의 무기체계를 도입하겠는가?' 이것은 끊임없이 고려할 과제인데 특히나 북핵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고 있는 체제가 '3축체계'입니다, '킬 체인-KAMD(한국형 미사일방어)-KMPR(대량응징보복)'. 여기에는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보강해야 할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동을 하기 위한. 더불어서 이스라엘 하마스에서도 나타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나타났습니다만 소형 무인기라든지, 패러글라이딩을 통해서도 공격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협에 대해서 방산 분야가 답을 주지 못하면 끊임없는 의문이 제기될 겁니다.

두 번째, 4차산업 혁명이라고 하는 신기술의 혁명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개발된 신기술 중에서는 양자나 AI나 하이퍼 파워 레이저나 이런 흐름들이, 또 우주 관련 여러 가지 기술의 흐름들이, 또 유·무인 복합체계 관련 흐름들이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무기체계에 접목되지 아니하면 우리 무기체계는 끊임없이 후퇴한, 노후된 그런 무기체계가 될 겁니다. 여기에 '추격형 전략'하고 '선도형 전략'의 균형적 조합을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추격형 전략은 우리가 가장 잘하는 건데 선도형 전략은 100개 중에 2, 3개 많으면 10개 성공하더라도 실패를 무릅쓰고 투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도전적 R&D를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발된 기술들이 무기체계에 접목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거고요.

대국민 인식이란 표현으로 말씀드렸지만,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수출 산업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출 액수에는 너무 매달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속가능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무기체계가 브랜드화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아직은 가성비, 즉 값도 싸고 정부가 일관되게 지원하고 이 모습 가지고 성장을 해 왔는데 대한민국의 K-방산 무기체계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믿을 수 있다라는 브랜드화로 전환되어야 된다.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 적어도 정부 내에서는 방사청, 국방부, 대통령실이 그리고 유관부처가 유기적인 협력체가 구축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현장중심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제 좀 쓴 소리를 하고 싶은데, 윤석열 정부 초기에 방위사업청의 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약화시켜 버렸습니다. 이제는 중요하게 인식하면서 현장을 뛰게 하는데, 현장을 아는 사람들이 움직이게 만들어줘야 방산 수출은 지속될 거다. 여기에 국방부는 국방 분야를 전체로 컨트롤하는, 거버닝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대통령실은 타 부처와 함께 협업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해달라 말씀드리고요. 우리나라 무기체계가 해외 수출되면 그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실험을 하고 테스트를 하는 나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무기체계를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수출한 방산기업 혼자 해결하라고 하면 안 된다. 이것을 정부 전체가 협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언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측면의 제언을 드립니다. 국방 R&D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진정한 의미의 가장 깊이 있는 신소재·신기술, 우리만의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데 국방 R&D를 투입해 주십사. 그러기 위해서는 실패를 무릅쓰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그러기 위해서 적어도 국방 R&D 예산은 보장해 주십사. 민이 못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실패를 무릅쓰고 해야 됩니다. R&D 예산 자체가 내년에 조금 삭감되는 현상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국방 분야 R&D는 도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이해를 해주시고 적어도 예산과 제도 측면에서 그것은 보장해 주십사.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위산업을 단순히 돈을 버는 산업 또는 나라를 지키고 무기체계를 만드는 산업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국가 과학기술 혁신의 통로로 인정해 주시라.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첨단산업으로 인정해 주시고 지역별로 협업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 주십사, 그리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문적 기반과 가치체계 정립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나라가 방위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술력', '제조업 능력' 이건 물적 기반입니다. 거기에 '정부 정책의 일관성', 이것이 세 개가 화합되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방산 시장에서 세계 3대, 4대 강국으로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국방 R&D를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서 물적기반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함과 더불어서, 네 번째 '학문적 기반'은 절대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 학문적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현장에 몰입해 있는 사람들은 미래 신기술의 흐름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내가 하는 일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중립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국가 공제가 필요한 기술이 무엇이다'라고 발견해주고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여기에 방산이 1류가 되기 위해서는 1류 인재가 투입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방산 인재를 키우는 학문적 틀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직자를 위한 재교육과정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20대 초중반의 새로운 생생한 젊은 인재들이 방산 분야, 국가과학기술을 혁신할 수 있는 첨단기술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학문적 기반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가치체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겁니다. 전쟁을 예방한다는 말은 평화를 지키는 겁니다. 평화를 지키는 데 군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무기체계를 공급하는 게 방위산업입니다. 방위산업은 '평화 지킴이 산업'입니다. 가치체계를 정확히 인식함으로써 분야 별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할 때에도 살상무기보다는 비살상무기, 대량 살상보다는 적 주입으로 타격할 수 있는 핵심무기, 이쪽 분야로 연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분야 별 정확한 가이드라인으로 성립되어서 우리 방산이 발전해 나감과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한국 방산이 평화 지킴이 산업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가질 때, 순전히 무기체계 수출 국가가 아니라 세계 평화를 지키는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방산시장에서도 평화 지킴이로써 연구한 연과 결과물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노하우와 같이 공유된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진정한 의미의 방산 강국이 될 것이고 지속가능한 방산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한국 주력산업의 생존전략

## 반도체 전쟁과 한국의 선택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



**양향자**

한국의희망 당대표



### “박재근

네, 반갑습니다. 양향자 의원님 반갑습니다.

### “양향자

네, 반갑습니다.

### “박재근

오늘의 주제가 ‘반도체 전쟁과 한국의 선택’이란 주제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시는 분이 옆에 계시는 우리 양향자 의원님이십니다. 늘 자주 뵙기도 하고요. 국회에서 정말 우리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한국일보에서 주최하는 반도체 전쟁과 한국의 선택이란 주제로 양 의원님과 토론을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잘 언론에 발표돼 있지만 최근 미국은 정부와 국회 주도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 공급망을 재편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법’을 제정하고 5년간 52.7 빌리언의 US 달러를 지원하여 현재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생산량을 2030년도에는 12%에서 24%로 증가시켜서 미국이 반도체 설계뿐만 아니라 반도체 제조에 있어서도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 물자 통계라는 개념으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통해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 추격을 뿌리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산업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하여 차량용 반도체의 제조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만의 TSMC에 두 개의 공장을 유치하고 투자한 금액의 약 50% 정도의 캐시 보조금을 지원을 하는 등 활발한 반도체 부활을 노력하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잘하는 파운드리 산업, 즉 선단 로직 제조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라피다스를 설립하고, 또 정부 지원하에서 민간 합동으로 빠르게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따라잡으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도 ‘EU 반도체 지원법’을 만들어 약 60조 원을 지원을 하여 차량용 반도체, 전력 반도체, 선단 로직 반도체 제조공정 기술과 생산량을 세계의 20% 정도를 차지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반도체 굴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14년부터 지금까지 약 한 150조 이상을 정부가 지원을 했고, 최근에는 향후 10년간 180조를 더 지원하겠다는, 즉 중국이 사용하는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확보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경쟁 국가인 대만은 2030년까지 1 나노미터 선단 로직 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최대의 로직 공정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만 정부에서 반도체 생산 단지 조성 및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유럽·일본·대만·중국 모든 국가가 반도체 기술력 확보와 제조업 생산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주도 하에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향자 의원님을 모시고 글로벌 반도체 전쟁과 한국의 선택에 대해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양 의원님께 질문을 하고 양 의원님께서서는 답변을 하는 형태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정부는 미국 테일러 시에 투자하는 삼성전자와 인디애나 주에 투자를 검토 중인 SK하이닉스가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시행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요청할 시, 검토하여 지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인센티브를 받은 기업이 중국 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다행히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의 생산량을 5%까지 허용하며 반도체 장비 반입에 대해서는 이유에 따라 미국 정부가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반면 AI 반도체 관련에 대해서는 대중국 규제를 더욱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양 의원님께서서는 향후 미국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가 우리나라 한국 반도체 사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양향자

우선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근본 원인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면 중국은 제조 클러스터가 없는 상황에서 팽리스 위주로, 설계 위주로 산업을 확장시켜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지정학적으로 차단이 되다 보니까 제조 클러스터가 없는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바로 옆에 한국 있고 일본 있고 대만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 제조 클러스터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게 미국의 경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제재가 아마도 지정학적 제재가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중국을 제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의 정책은 항상 아메리칸 퍼스트예요. 그런데 중국이 앞으로 신항산업에 있어서 모든 첨단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신항산업 분야에서는 거의 시장을 압도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제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냐, 결국은 대한민국은 단기적으로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왜,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의 영향력이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우리가 앞서가고 있고 중국은 아직까지는 그 분야에 있어서 무섭겠다고 하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우리를 추월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영역까지는 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저는 미국의 이 중국 제재가 사실은 기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이 왜 중국을 이렇게 제재하면서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슈도 계속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삼성과 SK가 중국 소유가 되면서 이게 안보적으로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그 위기의식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산업에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미치는 영향이 크게 보이지만 사실상 기술적 우위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훨씬 더 기회가 될 것이고 우리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외칩니다. 네덜란드가 ASML라는, 네덜란드가 한 530만쯤 되죠, 근데 이 ASML라는 광학기술에 기반한 UV 장비 하나로 미국이고 중국이고 모든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이제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느냐 결국 메모리 반도체의 우위를 지금 30년째 가장 탑 티어 중에서도 1등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메모리 반도체의 경쟁력, 또 시장 영향력을 훨씬 더 키워야 된다 지금보다. 그리고 우리가 가능성 있는, 디스플레이도 물론 해야 되지만, 파운드리 사업에 있어서 더 경쟁력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 “박재근

역시 반도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정확한 미래의 뷰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윤석열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산업단지 구축 및 반도체 특성화 학부 및 대학원 사업을 통하여 장기적인 인력 양성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와 선단 로직 반도체의 개발 및 주 생산은 국내에서 하고 해외 시장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미국, 중국에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마더 팩토리’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실제 경험이 많은 양 의원님께서서는 이런 마더 팩토리 전략이 우리의 올바른 국가의 선택이고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유지 및 강화를 할 수 있는지 대하여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양향자

예, 교수님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공장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사업은 좀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국내에 클러스터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파운드리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TSMC를 능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으로, 기술 동맹으로 미국이나 여타 국가에 이렇게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더 팩토리 이 전략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그 이유가 사실상 우리의 기술 유출이 이 현지 공장을 통해서 많이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에서 취하고 있는 삼성 화성 반도체 캠퍼스에서 시 안에 공장을 컨트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모든 키 테크놀로지는 이 마더 팩토리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서는 그냥 단순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단순한 제조를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제 이 지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첫 번째로 달려온 국가가 사실 대한민국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 달려간 화성 캠퍼스죠, 화성이 아니라 평택 캠퍼스입니다. 그 이후에서 이 관계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두 가지라고 보입니다. 첫 번째, 메모리 반도체가 여전히 삼성과 SK하이닉스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영향력 하에 있다. 그래서 가급적 메모리 반도체도 미국에서 생산해 줬으면 좋겠다. 메모리 반도체 공장도 미국에 세워 줬으면 좋겠다가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미-중 패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대만입니다. 대만이 왜 중요하냐면 TSMC죠. TSMC가 만약에 미국이 지금처럼 중국을 계속 제재하게 되면 중국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은 딱 하나라고 봅니다. 대만, TSMC죠.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2026년도까지 미국의 제재가 계속되면 우리는 무력으로라도 대만을 편입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TSMC죠. 그럼 TSMC가 전 세계 마켓 셰어의 1위고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미국은 TSMC를 폭파하겠다 그리고 기술 인재만 미국으로 다 모셔가겠다 이렇게 하고.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이 온 이유가 있는데 저는 삼성에 요청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뭐냐, TSMC의 어떤 캡티브 마켓을 이렇게 감당해낼 수 있는 회사가 TSMC인데 세컨드 솔루션으로 삼성을 보는 거죠.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 글로벌기업 중에 파운드리 사업을 TSMC 다음으로 솔루션을 낼 수 있는 회사는 삼성밖에 없는 것 아니죠? 그래서 삼성으로 하여금 미리 미국과의 기술 동맹과 보조금 지급 이라든지 아메리카 칩스 액트에서 보이는 그런, 기업의 투자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면서 미국에다 투자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테일러 시에 지금 여러 공장들이 세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그 투 웨이, 대한민국에 두 가지의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게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의 클러스터는 철저히 국내에 잔류시켜야 된다. 마더 팩토리가 아니라 그냥 우리 첨단산업 팩토리는, 메모리 반도체는 국내에 있어야 된다. 다만 파운드리 사업은 대한민국의 역량이 아직은 안 되기 때문에 미국과의 전략적 기술 동맹과 또 여러 가지 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미국에 클러스터를 만들어도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기술 유출이 되지 않게 하는 우리의 정책적 뒷받침이 꼭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기술유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적자원의 유출입니다. 그 부분을 잘 우리가 스크린 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근

양 의원님이 다시, 저기, 삼성 DS죠.

### “양향자

네.

## “박재근

네, 거기에 다시 CEO로 가시면 삼성이 한국 반도체의 미래를 잘 이끌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대단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마더 팩토리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정부에서 마더 팩토리 전략을 발표를 했고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놀라운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기흥·화성·평택에 14개의 10인치 라인이 지금 구축될 예정입니다. 실제로는 12개가 가동되고 있고, 두 개가 더 구축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용인 남사읍에 신규, 2030년까지 네 개에서 다섯 개 10인치 라인. 그런데 요즘 10인치 라인은 옛날과 달리 복층 혹은 3층으로 짓습니다. 굉장히 큰 생산량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SK하이닉스, 이천·청주가 7개 10인치 라인이 있고 27년부터는 첫 번째 용인 클러스터의 라인이 가동이 되고 총 네 개 라인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 라인도 기존과 달리 한 개 공장을 지으면 세 개 라인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2030년 정도가 되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10인치 웨이퍼 생산량을 3분의 1 정도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제조 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최근에 기흥, 평택, 용인 남사읍·원삼면을 포함한 첨단전략 산업단지 지정 하였고, 또한 안산·구미·부산을 반도체 소부장 단지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런 지정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산업단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한 반도체 소부장 단지의 발전을 위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가 진행되는데 그중의 내용에 보면 인허가 신속처리 및 타임아웃제, 용적률 1.4배, 용적률 1.4배는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여러 가지 규제 특례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 양향자 의원님께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을 하셨죠. 이 자리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국가 첨단전략 산업단지와 반도체 소부장 산업단지가 지정되면 어떠한 지원을 국가에서 해주는 것인지, 또한 2023년에는 평택·용인 반도체 특화 단지에 한 500억씩 정도를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타 특화 단지의 착공시점이 도래하지 않아서, 예산은 확정돼 있지 않지만 지원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화 단지를 지정한 지역에서 많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우리 정부나 특히 국회에서 어떤 관심을 가지셔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어떠한 법을 신규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 “양향자

우선 지난 7월에 정부에서 첨단산업 특화 단지로 7개, 소부장 특화 단지로 5개에서 12개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부장 특화 단지를 이렇게 지정하게 된 것도 사실 2019년도에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EUV PR, HF(불화수소)이 세 머티리얼의 수출규제 때문에 소부장의 중요성을 산업계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알게 되었었는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첨단전략 산업단지와 반도체 소부장 산업단지가 지정이 되면, 국가에서 어떠한 지원을 하고 또 진행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여쭙보셨는데 첫 번째가 특화단지 운영 조성에 필요한 최적 입지의 조석훈확보라는 전략으로 용수, 폐수 처리 시설 또 핵심 산업단지 기반 시설 구축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법안으로 보면 ‘산업입지법’ 또 ‘산업집적법’이 있습니다. 이런 인허가도 빠르게 하면서 신속처리 추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투자환경 개선인데 글로벌 첨단산업 투자 경쟁 속에서 이 국가 전략기술 관련 시설투자, R&D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용적률 말씀하셨는데 1.4배 강화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국·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도 감면해 주고 각종 부담금도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데.

또 더 중요한 것은 첨단 전략기술 초격차를 확보를 위한 과감한 R&D 및 사업화 촉진 지원 이렇게 지원책들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내년에 특화 단지를 12개를 지정했는데 각 지자체에서 올린 예산이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사실 첨단 산업 특화 단지에 14조 원이 필요한데 5년간 국비 지원이 얼마로 지금 책정됐는지 아세요? 444억 원인데 0.3%입니다. 게다가 내년에 인프라 지원 예산은 거의 제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화 단지가 제대로 구축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결위원으로서 예결위에서도 계속 지적하고 이 특화 단지가 제대로 적기에 가급적 빨리 구축이 되어야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가 국가경쟁력 또 시장에서의 주도력을 잃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작년 12월 28일에 국가 첨단전략산업법과 올해 3월 30일에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고 그 법안을 만드는데 또 우리 박재근 교수님이 아주 혁혁한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산업계에서는 ‘기적의 법이다’ 이럴 정도로 지금 통과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각 지자체에서 진행해야 되는 인프라 구축이나 첨단산업 클러스터들을 제대로 구축되게 하려면 제가 반도체 특별법 시즌 2를 네 개 법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네 개 법안을 발의를 하기까지 얼마나 힘드냐면 제가 발의를 했는데 공동 발의가 아홉 명이 더 있어야 됩니다. 총 열 명이 그걸 사인을 해서 발의가 되는데 단 한 명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 “박재근

왜요?

## “양향자

왜 그러냐면 이게 극심한 진영 갈등이 되다 보니까, 정당 간의 이런 전쟁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낸 법안이 서로의 정당을 도와주는 법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개별로 가서 설명을 하고 이 법안이 왜 필요한지 설득을 하고 하면서 법안을 마련했는데 이 법안 통과까지는 정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자체장들께 국회소통관에서라도 함께 좀 기자회견이라도 하자, 이 법안 통과를 좀 빨리 해 주십사. 그래서 그런 계획을 지금 계속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구축에 있어서는 예산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 “박재근

들으니깐 좀 답답한. 현장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과 또 교수님들이 보실 때는 굉장히 왜 정부가 이럴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중이고 특히 국회, 정부 이렇게 국가 주도로 이걸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하겠다고 하고 또 국회에서는 예산 확보가 안 되고. 힘드시겠지만, 꼭 좀 그 네 가지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양향자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 하나 제가 짚어야 되는데요. 그다음 질문으로 하실 수 있는데 올해 말에 첨단 전략산업시설 투자, R&D 임시 투자 세제 혜택이 종료가 됩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되거든요 산업계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K-칩스법에 따른 세액공제 규모가 내년에 3조 3000억 원에서 2025년도에 1조 원으로 대폭 감소가 되면 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져 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타개해야 되는 우리가 숙제가 또 있습니다, 네.

## “박재근

예, 꼭 좀. 더 예산을 지원해도 부족한데 또 이렇게 감소될 수 있다고 하니깐 정말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에 국내 반도체 회사들의 매출액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부하이텍의 합계 매출액이 한 140조, 해외 기업 중에 국내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기업을 포함해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한 40조 정도를 달성, 굉장히 규모가 크죠. 우리가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규모가 크다고 하지만 실제로 삼성, SK하이닉스를 운영하는 데 지원하는 소부장 업체가 한 40조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의 경쟁력을 살펴보면 사실은 그리 밝지를 못합니다. 소재 그룹 산하 중에 한 40% 또 뭐 장비 국산화 아니면 정말 요즘 더욱 감소되고 있고 15%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높은 기술과 고부가가치 소재·부품·장비는 전부 수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30년도가 되면 전 세계의 10인치 웨이퍼의 생산량의 3분의 1을 생산하는데 오히려 국내 소부장 업체들은 경쟁력이 더 낙후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 의원님께서 국내 반도체 소부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회와 우리 정부에 어떠한 정책을 장·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내 대기업 반도체 회사들은 일본 수출 규제 같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그래, 국내 소부장 업체를 같이 더불어서 성장하겠다'고 하지만 요즘 막상 보면 또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옛날처럼. 그래서 어떠한 좀 회사 정책을, 정부나 국회가 대기업이 진실되게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경험이 워낙 많으시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양향자

그 아까 2019년도에 세 가지의 반도체 머티리얼 규제가 있었을 때 우리가 마치 소부장 독립을 한 것처럼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나 EUV PR 같은 경우는 여전히 8, 90%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죠. 그중에 불화수소 하나, HF 하나 이제 70% 의존도였다가 40%로 내려온 그런 과정에 있는데, 사실은 소부장 기업들 첨단산업 내수화가 30개 품목이 지금 가능합니다. 3조를 수입 대체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니까, 범용산업 확장 시에 105개 품목에서 15조 7천300억 원이 수입 대체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부가 내년 소부장 국산화 지원 사업 예산을 또 75%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R&D 사업은 86.5%를 삭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부장은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재화할 수 있는 힘은 거의 없다고 보이고 사실 반도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제조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미국의 제재나 중국의 AI 제재나 이렇게 돼 버리면 우리는 그 제조의 힘을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소부장에 있어서도 내재화를 해 나가는 일들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저는 그 미국의 엔비디아를 보면 3년 전에 223조의 어떤 시가총액, 그러니까 나스닥 상장 시가총액으로 본 기업가치가 223조였는데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1300조가 넘어갔습니다. 지난달에 1500조가 넘어갔어요. 그런 상황을 보면 이 글로벌 경쟁기업들의 어떤 생태계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수백 개의 팹리스 회사들의 연합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유난히 대기업과 중견·중소, 벤처, 스타트업이 너무 이렇게 분절되어 있어요. 심지어 이제 어떤 상황이라면 우리가 내재화를 해야 되는데 팹리스를 보면 첨단산업이기 때문에, 미래 산업기 때문에 과기부가 담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반도체기 때문에 우리 산업부가 담당입니다. 근데 대기업 아니라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기부 담당입니다. 실제로 보면 담당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정부의 총리 산하로 첨단기술위원회인가요? 첨단산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국회에도 제가 그렇게 요청을 드려서 첨단특위가 만들어졌는데 사실 이제 유명무실하게 되고. 지금이라도 첨단특위에 제가 늦게 합류를 했습니다만 반도체 특별법 시즌 2라든지,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해야 되는 지원체계라든지 이런 것은 여야 정쟁이 아니라 정말 국가를 중심에 두고 우리가 좀 일을 해보자 그렇게 지금 절절하게 제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되게 중요한 게 소부장 스타트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빌리티,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전기 자동차라든지 앞으로 시라든지 모든 산업에 있어서 이 소부장 스타트업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평균 데스밸리가 2.6회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의 지원이 없으면 그냥 죽고 적어도 한 세 번은 지원이 돼야 겨우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제 2.6회의 생존율이, 2.6회를 받아야 생존율이 있다고 하는데 전 주기에 있어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려면 정치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국회 300명 중에 반도체를 다뤘던 사람이 저 하납니다. 그다음에 국회 300명 중에 과학기술 영역으로 분류되는 국회의원이 세 명입니다. 모르셨죠?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기가 정치권에서 너무 어렵다는 것,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려면 그리고 기회를 제대로 살리려면 내년 총선 밖에는 없다.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가게 할 힘을 가진 분들은 국민밖에 없다. 근데 그 국민들이 내년에 이런 국회의 어떤 성분, 이 성분을 과학기술 영역으로 좀 균형감 있게 균형 있게 구성을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지속적으로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승만과 김구의 싸움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오고 있다' 이념싸움과 이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내년 총선밖에 없는데 이 방송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내년은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한국의 희망을 만드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치적 얘기는 일부러 안 하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 “박재근

예정된 시간이 거의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이 남았는데요, 뭉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인력양성, 특히 양 의원님께서 특위를 하시면서 정말 그 인력양성의 본질을 아시고, 제가 뭐 양 의원님 칭찬하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고요.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진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지역적인 배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력 양성이 결국 대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냐는 그 내용하고 사실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를 잘 하고 있지만 또 선단 로직도 TSMC를 따라가고 있지만 새로운 기술, 미국이 이제 이렇게 반도체 법을 만들어서 새로운 기술을 또 표준화라든지 차세대 패키지 기술 이런 것을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산업부에서 '첨단반도체기술센터', 'Advanced Semiconductor Technology Center'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꼭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ASTC에 대해서도 양 의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양항자

이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졸속으로 R&D 삭감의 가장 타격을 입은 데가 기술 인재 육성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만 해도 18만 7000명인데 그 가운데 미국이 6만 명, 중국이 5만 2천 명, 인도가 3만 5천 명, 대만이 만 명입니다. 한국이 7천 명 정도 수준인데 특히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삼성 파운드리가 2만 명인데 TSMC는 6만 명이고 시스템 반도체, 삼성 시스템LSI가 1만 명인데 퀄컴이 3만 5천 명. 이것도 상당히 된 자료인데 저희가 인적자원의 문제가 지금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대만에 출장을 갔다가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 다 물어봤어요, 무슨 일을 하고 싶냐. 제가 놀라웠습니다. 100% 반도체였어요. 왜, TSMC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생태계가 이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를 다 확보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의대 정원 늘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더 이공계 인력들이 정말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이런 리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과학기술계, 특히 내수 그러니까 국내의 이슈를 다루는 어떤 일보다도 국가 전쟁, 그러니까 국가 간의 전쟁의 역할을 하는 우리 이공계 인력들에게 정말 영웅이라는 칭호를 하면서 그들을 빛나게 해줘야 된다. 오늘, 어제인가요? 어디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발 좀 TV에서 의사·변호사·판사 이런 사람들, 법률가들 좀 너무 하이 클래스로 이렇게 조명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우리 이공계는 97년, 98년도에 대량 해고 사태를 겪으면서 25년 동안, 그러니까 사반세기 동안 우리는 기술 인재에 대한 정책을 그냥 손 놓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 정말 큰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인적자원에 대한 로드맵을 제대로 세워야 하는데 대한민국이 저는 대한민국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이 비전이 있는 나라인가요?'라는 걸 여쭙고 싶을 정도로 비전이 없다 보니까 목표가 없고, 목표가 없다 보니까 로드맵이 없고, 로드맵이 없다 보니까 기술 인적자원을 어떻게 배치시켜 되는지 계획이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큰일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100조 기업이 두 개 아닙니까?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그래서 2030년도에는 적어도 100조 기업이 다섯 개는 나와야 된다. 그리고 2050년도에는 100조 기업이 열 개는 나오면서 1000조 기업이 등장할 해야 된다. 애플이 지금 3500조 즈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생태를 구성하는데. 그게 대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구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업, 중견·중소, 벤처, 스타트업들이 다 생태계를 이룰 수 있도록 지금 TSMC처럼, 엔비디아처럼 그런 회사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고.

방금 ASTC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ASTC도 정말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상황이라는 합니까만, 올해 예산 삭감을 보면 묘연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도대체 그냥 립 서비스만 하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국가 R&D가 16.6%가 삭감된 상황에서 보면 세계 최고 연구기관을 세우는 커녕 있는 R&D 기관도 다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제가 지금 어제부터 예결위원 시작이 됐는데 이 ASTC, 첨단반도체기술센터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 “박재근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하신 말씀은 마무리 말씀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의원님과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니 사실은 저도 반도체를 지금 40년째 연구하는 사람이고 또 학회장으로서 또 산업과 또 학계, 교육현장까지 뛰고 있는 사람인데,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반도체 전쟁을 하다 보니까 연구를 하는 저희들도 위기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요. 왜 반도체에도 기술력이 우리가 뒤떨어져 있고 추격하는 상태가 되어 버리고 그에 비해서 저희들이 해외출장을 나가보면 놀랄 정도로 반도체에 대해서는 각 국가별로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서 짹짹 놀랄 정도로 심지어는 한국에 있는 교수들 다 미국 교수로 오라고 프러포즈도 하고. 저한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하하.

### “양향자

저는 중국에서 옵니다.

### “박재근

너무나 많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특히 미국을 보면 국회에서 주도를 해서 오히려 정부가 따라가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고 EU도 마찬가지고요. EU 연합에서 주도를 하고 정부가 따라가고, 일본은 일본 국회가 정부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정부하고 국회하고 박자가 안 맞는 것 같은. 전문성이 또 떨어지고 사실은 우리가 해외에도 이런 모임에 가서 보면 해외에서 나오는 미국의 국회의원이나 일본을 보면 전문성이 굉장히 뛰어난데 왜 우리는 이럴까. 그리고 우리 반도체가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의 축의 하나이고 또 우리 젊은이의 어떤 미래가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인력양성이나 이런 모든 정책이 좀 박자가 안 맞는 것 같고, 특히 국회가 좀 주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양 의원님처럼 이런 전문가들이 주도를 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미래를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또 이렇게 돼 버리면 기업은 기업대로 노력하고 또 정부는 발표만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진행이 안 되고. 이러면 결국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정말 가슴 깊이 드는데요. 양 의원님 꼭 좀 부탁드립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그나마 우리 전문가로서 양 의원님밖에 국회에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깊은 말씀 누구보다 가슴속에 있는 말씀이시니까 꼭 다른 분들 설득을 시키셔가지고 다음 국회가 될 때는 또 더 많은 전문가가 들어가서, 꼭 좀 우리나라 반도체 미래를 밝게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주도하는 그런 게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양향자

교수님이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 “박재근

네, 한 10분 정도 초과했는데요.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늘 우리 반도체만 생각하시는 양향자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양향자

예, 감사합니다.

# THE KOR-ASIA FORUM 2023

## 재편되는 세계경제, 한국의 생존전략은

The Era of Great Transition : A New Roadmap for Economic Cooperation

2023.11.02(목),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

[www.kor-asiaforum.com](http://www.kor-asiaforum.com)



THE HANKOOKILBO FORUM



@thehankookilboforum



@hkilboforum

